



“그 쌤의 이중생활”

공유하다 나의 지식, 우리의 지혜

배곧초등학교
김차명 교사



03

2020
VOL.31

-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모르는 것은 널리, 틀린 것은 바로잡는 '한국 알리기',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 ▶ 오늘, 생각하기 • The-K 리포트 _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
- ⏸ 지금, 쉬어가기 • 라이프 연구소 _ 공포와 공존 그 사이, 바이러스
- ▶▶ 내일, 행복찾기 • The-K Focus _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 든든한 미래 설계

📱 웹진



Contents

04 여는 글
일어나 봐, 봄이 왔어



◀ 어제, 기억하기 —————
Remember_역사 이야기 & 회원 참여 & 인터뷰

06 에세이
마티즈 타는 교사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10 The-K 인터뷰 1
모르는 것은 널리, 틀린 것은 바로잡는
'한국 알림이'
_ 성신여대 교양학부 서경덕 교수

14 The-K 인터뷰 2
교육연극으로 꿈꾸는 행복한 교실
_ 경북 상주중학교 노정 교사

18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종교와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목회자 '김병조 선생'

▶ 오늘, 생각하기 —————
Think_K교육 기획 테마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2 The-K 스페셜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힘 있는 지식'의 교육

26 The-K 리포트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

28 공간의 재구성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뀐다
_ 서울 녹천중학교

32 [+25] 그 뽀의 이중생활
공유하다, 나의 지식 우리의 지혜
_ 배곧초등학교 김차명 교사

36 [+35] Be Myself
성공보다 성장을 지향하는 '업글인간'

38 [+45] 티처&티처
목표가 다른 부모와 자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3월

40 [+55] 인생 2모작
신인이지만 노련한 이 배우를 주목하세요
_ 연극배우 신강균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인 차성수
기획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
유종훈, 이정우, 김경희, 김충환, 황수현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이경희, 정은주, 정라희, 김유리
교열 이영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사진 포토그래퍼 김도형, 권대홍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지금, 쉬어가기

Relax_여행 & 건강

44 지금, 여기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이들의 낙원,
말레이시아

50 아름다운 동행

포근한 햇살처럼 따스하게
다시 피어난 우리의 봄
_ 이두이 회원과 엄영애 교수의
사제 간의 여행기

56 라이프 연구소

공포와 공존 그 사이, 바이러스

58 더-쉽

낭만 가득한 '생활 여행자'의 삶이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 달 살기'

62 마음쉽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The-K 마음쉽'과 함께하세요!



내일, 행복찾기

Happy_공제회 주요 이슈& 출자회사 뉴스

The-K Focus

64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
든든한 미래 설계

66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셜미디어 튜아보기

68 겨울밤을 수놓은 음악의 향연
오페라 「리골레토」

70 북&JOY

매월 새로운 베스트셀러를 만나볼 시간,
'책과 함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72 The-K News

문화행사 초청 및 The-K호텔 할인 소식

74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대여'편

76 독자 의견 이벤트

소통하고, 함께하다
'독자에게 듣는 The-K 매거진'



지상 강의

78 행복한 일터를 가꾸는
일터학습자의 역량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일어나 봐, 봄이 왔어

창가에 놓인 화분의 여린 잎에서
길가의 나무에 돋아난 꽃망울과
물가에 핀 버들강아지까지.
삶의 모든 곳에서 봄이 먼저 꿈틀댁니다.

새들의 목소리엔 밝은색이 짙어지고,
햇살이 앉아 무거워진 강아지의 눈꺼풀 위에 찾아온 반가운 봄처럼,
「The-K 매거진」 3월호는 따스하게 닿는 봄별 같은 소식들로 채워보았습니다.

25년간 한국 홍보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에 힘을 쏟는 서경덕 교수님과
우연을 행복한 운명으로 이어가며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신강균 회원님의 인생 2막에서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열정을 보았고,
오랜만에 조우한 사제 간의 따스한 봄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새내기 회원들을 위한 든든한 미래 설계와 다양한 SNS 채널로 만나는 공제회 이야기,
책으로 만나는 일상 ‘북&JOY’까지 회원들을 위한 소식도 알차게 담았습니다.

눈을 뜨는 대지와 기지개를 켜는 나비의 작은 몸짓이 반가운 이즈음,
「The-K 매거진」과 기분 좋은 봄마중을 떠나보세요. ㉠



마티즈 타는 교사

글. 박선영(광주 태봉초교 교사)

퇴근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공문을 끝내지 못했다. 하다 만 공문을 급하게 컴퓨터에 저장하고 학교를 나왔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차를 탔다. 운전 5년 차, 이제는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도로를 달려 카페로 갔다. 카페 근처 아파트에 주차한다. 여전히 주차는 어렵다.

‘선생님, 저 과학고 합격했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민준아. 정말 잘 됐다. 축하해!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선생님이 네 학교 근처로 갈게. 학교 근처 카페에서 5시 30분에 보자.’

‘네, 선생님. 감사해요. 영호도 같이 간대요.’

영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5년 전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왠지 모르게 긴장되었다. 카페에는 아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절로 웃음이 났다.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보다 키는 훨씬 커 버렸지만, 앓된 얼굴은 그대로였다. 반갑기도 하면서 어색했다. 묘한 분위기 속에서 음료를 주문했다.

“선생님, 차는 바꾸셨어요?”

나는 아이들이 내 차를 봤나 싶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영호야, 어,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법이 있죠, 선생님. 그때 마티즈 타고 다니셨잖아요.”

5년 전, 난 마티즈를 타고 다녔다. 흰색에 회색 줄무늬가 있는 조그마한 중고 마티즈였다. 마티즈 주변으로 큰 차들이 지나갈 때면 왜 그리도 흔들리던지,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조그맣고, 주변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마티즈, 그 마티즈는 날 닮아 있었다. 특히 영호에게 난 마티즈 같은 교사였다.

영호 앞에서 난 참 작아졌다. 영호는 에너지가 많고 남성적인 학생이었다. 4학년 때 영호 담임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도력이 있어 영호가 담임 선생님을 많이 따랐다. 그런데 5학년이 되어 날 만나자, 내 특유의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영호에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영호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어려웠다.

영호가 거친 행동을 하거나, 반항적인 눈빛을 보일 때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았다.

‘내가 작년 영호 담임 선생님처럼,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



5년 전 영호가 내 앞에 앉아 있다. 난 작아지려는 마음을 다시 추스르며 영호를 보고 웃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색함이 조금씩 사그라든다. 영호는 특유의 입담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아, 그때 선생님 마티즈 탈 때, 진짜 좁았는데. 선생님, 저랑 몇몇 애들 데리고 애슐리 갔잖아요? 식당으로 출발하려고 차를 타려는데, 차가 엄청 작은 마티즈였어요. 그 좁은 차에 우리가 타고 갔어요.”

그랬다. 난 그 좁은 마티즈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곳저곳을 다니곤 했다. 그때는 무슨 열정이었을까?

“한번은 선생님이 우리 공부시키신다고 토요일에 도서관에 데리고 가셨잖아요. 시험공부 대비시키신다니요. 그때 지겨워서 친구랑 저랑 PC방으로 도망갔는데.”

영호는 5년 전에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잊어버린 일들을 말이다.

“이야,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니?”

“당연히 기억나죠. 그리고 선생님, 애들이 말 안 들으면 화도 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요즘 초등학교들 문제 일으키는 것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단해.”

영호의 말 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있었다.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만의 착각일까?

착각 속에 웃고 있는 나에게, 민준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5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고마워, 민준아. 선생님은 네가 자랑스러워.”

차를 마시고 난 후, 두 아이는 내 차가 있는 곳까지 바라다주겠다고 했다. 내 차도 구경할 겸 말이다.

“오,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차예요. 색깔도 좋은데요.”

아이들은 마티즈에서 바뀐 내 차를 확인한 후, 나를 배웅해 주었다.

내가 영호를 위해 마음을 쓰고 애썼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모두 쓸데없는 노력 같았다. 그런데 영호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난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을 말이다. 민준이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선생님인 날 기억하고 연락을 줬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따뜻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넓고 작은 중고차 마티즈. 그 마티즈가 내 진심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줬나 보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보잘것없는 마티즈를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마티즈를 타던 교사, 내 과거를 안아준다. 상처도, 아픔도, 기쁨도, 보람도. 그래, 고생 많았어. ㉞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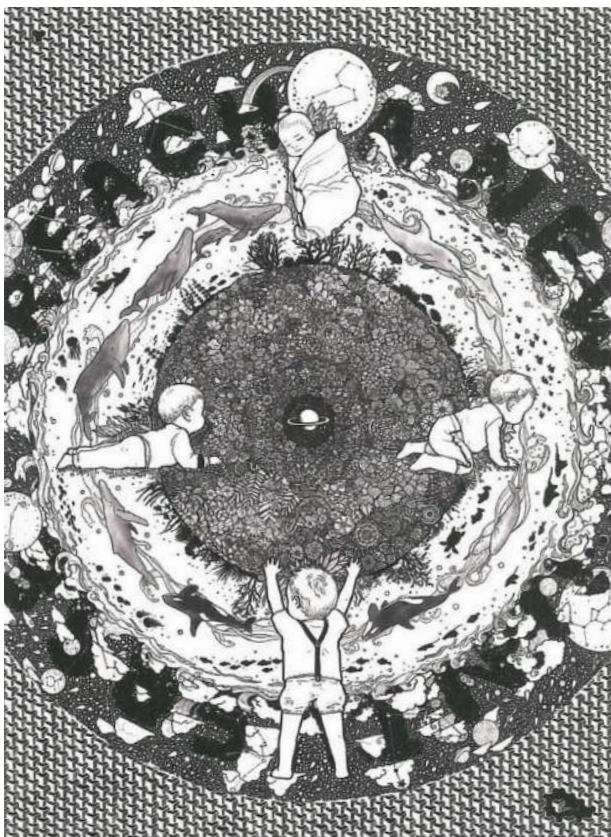
성산일출봉의
봄

김기남
연세대학교 의료원

유화 | 90.0x61.5cm, 2018

제주 명소 성산일출봉과 봄의 상징 유채꽃밭의 조화로운
풍경으로 제주의 봄을 표현.





NEW UNIVERSE

유예지
충남 청양초등학교

디지털 페인팅 | 39.4x54.5cm, 2019

태블릿과 디지털 펜슬을 이용하여 아날로그적으로 그린 디지털 펜 일러스트 작품. 아기가 태어나 서로의 인생에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

희망의 축제

박호자
쌍문초등학교

수묵채색 | 70x70cm, 2018

이른 봄 하늘 아래 곱게 피어나는 백목련과 자목련이 어우러져 봄의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의 날.





모르는 것은 널리, 틀린 것은 바로잡는 —— ‘한국 알림이’

성신여대 교양학부 서경덕 교수

벌써 25년이다. 대학생 시절,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한국을 제대로 아는 이들이 없어 자발적으로 시작한 한국 알리기. 이제는 ‘격세지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의 문화에 주목하고, 한국어를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역사 왜곡은 현재진행형이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장점들이 너무도 많다. 서경덕 교수가 ‘한국 알림이’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The-K 인터뷰」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25년째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 알리미로 활약하는 서경덕 교수를 만나보세요. ▶





하루하루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예전보다 한국의 인지도가 확연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외국에 가도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 서경덕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알림이 25년, 달라진 한국의 위상

스케일이 커도 참 컸다. 자비를 들여 「뉴욕타임스」에 낸 첫 번째 독도 광고. 덕분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당연히 광고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뀔 리는 없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광고를 꾸준히 게재한 것은 물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활용해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인이 몰려드는 국제무대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금도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하면 상징성이 큼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한 만큼, 같은 비용으로 얼마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해요. 지금은 유튜브와 SNS를 활용한 모바일 홍보가 더욱 유효해졌어요. 같은 콘텐츠라도 매체나 타겟에 따라서 홍보 효과가 달라지고요. 하지만 매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시 신문의 시대가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체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예전보다 한국의 인지도가 확연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외국에 가도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받지 않는다. 김치나 불고기 외에도 치킨에 맥주 같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늘었고, 한국 음악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도 K-팝으로 장르를 뚫고 그리기보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면서 취향을 논한다.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는 순간들이다. 서경덕 교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 한 권이라도 국내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것과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작가를 전혀 몰라도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거든요.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만들면 다를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장기적으로 한국인 개개인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보다 경험 ‘현장에 답이 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좋아졌다고 해도, 서경덕 교수의 세계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간다. 지난해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날이 더 많았을 정도로 분주하게 지냈다. 특히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서경덕 교수는 몇 마디 문자로 역사의 의미를 전하기보다 더 많은 이가 현장에서 직접 역사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국경을 넘어 외국 여행을 하는 시대인 지금, 책에서만 보던 역사의 현장을 실제로 둘러본다면 더욱더 의미 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 탐방 코스를 정리하고 개발했다.

“상하이에 관광하러 가는 분들이 많은 데도 그곳에 윤봉길 기념관이 있고, 만국공원에 여러 독립운동가가 묻혀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얼빈에 간다면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따라서 하루 이를 돌아볼 수 있고요. 역사 책은 물론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도 역사를 접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지난해에는 중국과 일본 위주로 경로를 정리했고, 올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역사 탐방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서경덕 교수. 더불어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미처 알려지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해 그들을 기릴 수 있는 역사 탐방 코스 역시 개발할 예정이다. 서경덕 교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보내는 메일과 메시지의 질문을 카테고리로 묶어 보니 그중 80%가 독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독도에 직접 가보시라고 답합니다. 저 역시 역사학자가 아니라 평균보다 독도에 관해 좀 더 아는 수준이죠. 역사적인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힘으로

올여름에 열릴 ‘2020 도쿄올림픽’은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다. 이미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겨냥

해 도쿄 도심 한가운데 독도전시관을 재개관했다. 글로벌 이벤트로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는 시기에 조직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를 지적하고자 최근 서경덕 교수는 일본으로 방송 촬영을 다녀왔다. 더불어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욱일기 응원을 할 수 없도록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도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의 욱일기 응원을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일본에서 욱일기 응원을 강행한다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릴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꾸준히 알려진 탓에 일본의 우익단체로부터 수시로 협박 편지를 받기도 한다. 혼자만 겪는 고충이라면 참아도 되지만, 간혹 주변 사람들에게도 협박 편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도치 않게 짐을 지워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서경덕 교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혼자만 애써왔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러 기업과 유명 인사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서포터즈가 되어주는 국민과 교민들의 노력이 그를 계속 ‘한국 알림이’로 살게 한다.

“저의 SNS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 알림이 지점장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나 동해 표기가 잘못된 곳을 제보해주시거나, 어느 상점에서 우익 상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하루에도 50통 정도 받습니다. 제보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외국유학생연합회에서도 새로운 동아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한 번의 작은 날갯짓이 계속 이어져 일으킨 선순환의 나비효과. 그 사실을 알기에 서경덕 교수는 오늘 하루도 ‘한국 알림이’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 ㉔

교육연극으로 꿈꾸는 행복한 교실

연극에는 희곡, 배우, 관객, 무대가 필요하다. 잘 쓰인 희곡과 뛰어난 연기력을 갖춘 배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 멋진 장치를 갖춘 무대는 '좋은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나 노정 교사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만의 교육연극으로 학생들을 변화시켜온 그의 수업은 그래서 너무도 궁금했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경북 상주중학교 노정 교사





대본 없는 5분 회의 그리고 3분 공연

경북 상주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은 왁자지껄했다. 그러나 작은 체구에 작은 목소리를 가진 노정 교사가 칠판에 종이를 한 장 걸자 이내 조용해진다. 오늘 수업은 ‘공공예절에 대한 연극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모둠별로 극을 구성해 연기하고 마지막에는 모둠별로 평가를 한다는 내용이다.

각 모둠에 주어진 준비 시간은 단 5분. 대본은 없어야 하고 연극은 3분 안에 끝내야 하며 마지막에는 관객(친구)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학생들이 순식간에 머리를 맞댔다. 6개의 모둠이 발표한 연극 주제는 ‘영화관 에티켓’, ‘화장실 에티켓’, ‘공공장소에서 개 목줄 채우기’, ‘노상 방뇨 금지’다.

누군가는 목청껏 떠들고 누군가는 조용히 듣기만 한다. 슬쩍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저마다 에피소드 의견을 내면서 배역을 정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툄툴거리기도 했지만, 정해진 5분이 되자 정확히 회의가 끝났다. 6개의 모둠이 번갈아 앞에 나와서 하는 연극은 시종일관 폭소의 도가니였다.

영화관 에티켓의 경우에는 앞 사람 의자를 걷어차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다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감나게 연기했고, 화장실에서의 리얼한 모습, 방뇨를 당하는 전봇대, 목줄 없이 짚는 개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직접 연기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관객들의 배꼽을 잡게 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회의 때 얄전히 듣기만 했던 학생들도 기꺼이 나가서 한몫하는 모습과 친구들이 연극할 때 모두가 몰입해서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연극을 마친 뒤 평가 시간은 꽤 냉정하고 객관적이었다. 이 전체 수업 과정에서 노정 교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교육연극은 학생들에게 숨어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끄집어내면서 학생들을 한층 더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교사가 연극이라는 도구를 통해 교육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당의정(학생들의 흥미를 교육 내용 위에 덮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만들어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고 시험도 잘 치룹니다.”



교육연극, 보람과 고통의 시간

수업이 끝나고 마주 앉은 노정 교사는 올해로 34년 차 경력을 가졌음에도 맑고 신선한 느낌을 전해주는 인물이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당연히 그가 연극에 빠지게 된 계기다.

“사범대를 다닐 때 희곡론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모듈별로 연극을 하라고 했고 그 결과로 학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모듈의 한 친구가 윤대성 작가의 희곡집인 「신화 1900」이라는 대본을 들고 왔는데 주인공의 대사가 전체 대본의 2/3를 차지하는 매우 무거운 내용의 사이코 드라마였어요.”

리딩을 하는 동안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던 노정 교사는 주인공을 맡겠다고 나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결국 그는 이 연기로 최고 점수와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있었구나. 내가 교사가 되어 연극을 한다면 나처럼 표현 못하는 학생들 속에 있는 불덩이를 꺼내줄 수 있겠다’고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 천 편이 넘는 연극을 봤고 서점에서 연극과 관련된 모든 책을 구입해 읽으면서 교사가 되면 학생들과 연극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 교육연극의 선구자였던 김석만 교수, 최영애 교수, 김선 교수에게 “연극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임을 배운 것은 이후 교육연극 교사로서의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그가 들려준 학교에서 일어난 연극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밤새 들어도 모자랄 정도였다. 교육연극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장 선생님을 설득했던 일, 성적이 떨어진다는 학부모의 반대로 연극반 학생들에게 오전에는 국·영·수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연극 연습을 했던 일, 학교 밖에서 사고 치는 학생들을 다잡기 위해 10여 명의 학생을 데리고 합숙했던 일 등등.

그러나 노정 교사는 끝까지 연극과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극을 통해서 달라진 학생들의 변화는 기적처럼 펼쳐졌고, 변화는 스스로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행복해진 학생들, 더 행복해진 교사

“끊임없이 사고 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엄마의 소원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만이라도 받는 거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연극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망친 연극을 다시 무대에 올리보겠다고 자진해서 담배를 끊고 돈을 모으면서 후배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 우등상, 모범상과 함께 자격증을 2개나 따서 기능상, 선행상까지 받았습니다. 학생 엄마는 그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학생은 한국



폴리텍대학을 졸업하고 좋아하는 자동차 분야 일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건실한 가정으로 잘살고 있습니다.”

올해 마흔이 된 이 제자는 지금도 명절이면 가족들을 데리고 노정 교사는 물론, 노정 교사의 부모님까지 찾아오는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고. 이외에도 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인 학생들, 학업 성취도를 올린 학생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교육연극은 학생들에게 숨어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끄집어내면서 학생들을 한층 더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도 자존감이 높아져요. 교사가 연극이라는 도구를 통해 교육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당의정(학생들의 흥미를 교육 내용 위에 덮어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만들어 제시했을 때,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고 시험도 잘 치룹니다.”

노정 교수의 수업은 재미있다. 남자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시를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레퍼 김하온과 빈첸의 「바코드」로 먼저 풍자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시를 보여주며 풍자를 찾게 하는 수업이나 한글 창제 원리를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세종대왕에게 찾아가 직접 그 원리를 듣는 내용의 연극 등을 만들게 하니 “선생님 수업은 축구만큼 재미있어요”라는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노정 교사는 교육연극을 통해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바란 다. 첫 번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두 번째는 남의 표현을 집중하고 존중할 수 있을 것. 2학기가 끝날 때쯤이면 노정 교사의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니 이 또한 교육연극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맨발로 다니는 빈민가 학생들이 다칠까 우려조각을 줌고 다녔던 ‘페스탈로치’ 선생의 전기를 읽으며 교사를 꿈꾸었던 꼬마는 정말로 교사가 됐고 오랜 교육연극을 통해 얻은 상처, 눈물, 기쁨, 보람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까?”

“네. 좋은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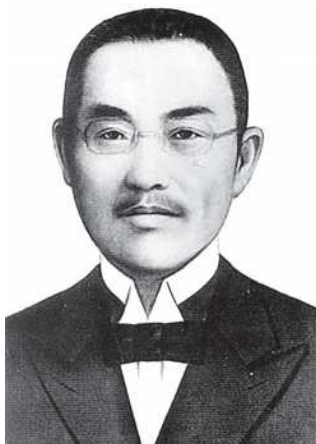
‘The-K 인터뷰 2’는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남들과 다른 혁신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교육 현장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독자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혹은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이 지면에 담아, 다양한 교육 혁신 현장을 소개하여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로 연락 바랍니다.



종교와 교육을 통한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목회자 ‘김병조 선생’



1919년 3·1 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대한독립을 외친 일재(一齋) 김병조 선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교와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으로 국권 회복을 모색한 김병조 선생은 상해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를 역임하고, 항일 역사서 출간에 힘쓰면서 그 누구보다 대한독립의 열망을 뜨겁게 불태운 독립운동가이자 목회자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전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3·1 만세 운동 추진에 뜻을 모으다



민족대표 48인(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자)

평안북도 정주군 동주면에서 태어난 김병조는 여섯 살 때 향리에 입학해 한학을 익혔다. 1897년부터 서당을 열고 훈장이 되었는데 애국계몽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1903년부터 변산동 서당을 개편하여 신식 초등학교로 만들었다. 그는 1909년 기독교 장로회 신자가 되었으며, 191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1917년 조선예수교 장로회신학교(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서 생활을 시작했다. 1919년 2월, 김병조는 유여대, 장덕로, 김승만 목사 등과 함께 선천지역에 있는 양전백 목사 사택을 방문했다. 기독교 목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근처에 왔다가 양전백 목사의 집을 들렀는데 이곳에서 남강 이승훈을 만났다.

남강 이승훈은 김병조를 비롯해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목사에게 3·1 만세 운동 거사 계획을 들려주었다. 김병조가 거사 계획을 들은 당시에는 이미 이승훈을 비롯한 기독교 인사들과 천도교 지도자들이 연대에 합의한 후였다. 단순히 기획 단계의 계획이 아니었다. 거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김병조를 포함한 위 4인은 종교인이자 민족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3·1 만세 운동 거사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김병조는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외치기 전, 만세 시위 동참을 권하는 ‘격고아한동포문(檄告我韓同胞文)’을 제작해 배부했고, 3월 1일 당일 평안북도 여러 지방을 다니며 만세 시위를 전파했으며,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당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함께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김병조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다.

슬프다. 우리 팔도의 동포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크게 뉘우칠 지어다. 하늘의 모습을 우러러 보아라, 동방의 밝은 별이 이미 밝았다. 시국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아라, 짐짐마다 경종이 스스로 울려 휘날리는 태극기는 재군들의 조국정신을 활발하게 하고, 열렬한 만세소리는 재군들의 일체 생명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도다.

- 격고아한동포문

뒤이어 3월 7일, 김병조는 친일파 관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관헌문(警告官憲文)’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도 게재되었다.

이르노니 너희 조선인으로 왜놈의 관리된 자야 양심에 따라 스스로 반성하라. (중략) 의를 외지하고 일어난 2000만 민족이 모두 너희들을 쳐죽일 생각임을 모르는가. 아니면 절개를 지키며 숨겨간 30만 충령이 이미 너희를 죽이기로 한 결정을 모르는가. 위로는 하늘이 두렵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피가 과연 네 팔수에 흐르고, 충이니 의이니 하는 마음이 아직도 네 마음속에 남았거든 북을 치고 공격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힘을 내어 무기를 거꾸로 들고 돌이켜 길을 바꿈으로써 크게 후회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여라.

- 경고관헌문





1919년 6월 17일 설립한 임시사료편찬회(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사료를 수집·정리·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위원들(앞줄 맨 오른쪽이 김병조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식 그리고 3·1 만세운동

우리는 물었어야 한다. 왜 하필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했을까? 민족대표 33인이 전부 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거사 전 좋은 술 한 잔을 마시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 왜 하필 태화관이었을까?

조선 24대 왕 헌종은 자신의 후궁들이 머무는 사당을 지었다. 이는 태화관의 시작이었다. 그러다 이곳이 을사오적(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체결한 을사늑약 당시 찬성을 표시했던 정부대신 5명을 말함) 중 한 명인 이완용에게 넘어갔고, 1907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울분을 참지 못했던 대한제국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은 이완용의 집을 불태운다.

이완용이 집을 잃자 일제는 태화관 사당을 개조해 별장을 꾸미라고 말했고, 이때부터 태화관은 을사오적을 비롯한 친일파들의 주요 모임 공간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총리대신으로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일본 정치가)와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 회의를 수도 없이 거친 곳도 바로 태화관이었다. 즉, 태화관은 매국과 친일의 근거지였다. 민족대표들은 '악의 근원지'를 정화, 정명하기 위해 악의 근원지, 악의 중심으로 들어가 목이 터져라 독립선언문을 외쳐 민족정기를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태화관은 친일파들의 주요 거점이었기에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것이 태화관이 독립선언식의 거점 장소로 최종 결정된 이유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독립선언서 낭독을 문제 삼아 태화관을 폐쇄했고, 1921년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종교 활동을 전파하는 포교 장소로 활용되다 1930년대에는 감리교 여성 복지기관으로 변했다. 당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태화관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갈 때, 누군가는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후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알려져야 하는 인물이 아닌지', '목회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족대표 33인 중 김병조는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상하이로 간신히 망명에 성공했다.

그 후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설립된 임시정부에 합류했고, 임시의정원 평안도 지역 대표와 선전위원회 이사를 역임했다. 당시 김병조는 임시정부에서 사료편찬 위원으로 일을 하며 1924년 「대동역사」, 「독립혈사」를 발간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독립운동 활동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목회 활동을 병행했다. 그에게 기독교 신앙은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신념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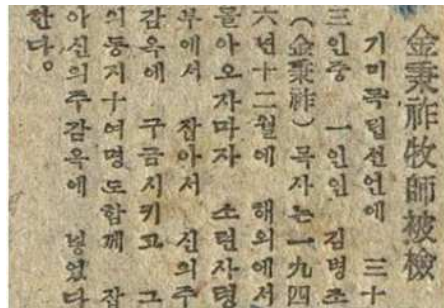
김병조(金秉祚)선생
(1877.1.10.~1952)

- 독립운동가이자 목사, 교육자
-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임시사료 편찬위원회 위원
-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방선전부 이사
- 1921년 국민대표회기성회 조직위원
- 1922년 상하이 인성학교 교사
-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조국 통일을 향한 변치 않은 염원

만주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김병조는 1933년 귀국했다. 광복 직후 김구, 이승만과 함께 반소련 무장 비밀결사를 조직했다가 1946년 12월 24일 체포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병조는 신의주 감옥에 구금된 이후 1947년 2월 20일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는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최후가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카자흐공화국 알마아타에 살고 있던 고 이영환(1924~1964, 일제강점기에 경상북도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의해 확인되었다.

김병조와 함께 광복단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소련군에 체포된 이영환은 1948년 6월 클라스노 야르스코변강 레스토구역 북방수용소 B5호 휴양소에 이감되었다. 이곳에 먼저 수용되어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병조였다. 1950년 5월 초, 김병조는 바이칼호 부근 수용소로 이감되었다. 그 후 1952년 여름에 김병조는 옥사했고, 바이칼호 부근 언덕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고 전해졌다. 이영환은 김병조를 다음과 같이 추억했다. 1948년 8월 15일 밤에 휴양소 벤치에서 김병조가 “오늘이 해방 3주년이다. 살아서 수용소를 나가면 조선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3국으로 망명해 조국 통일의 맥을 잇고 대한의 아들임을 늘 잊지 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목에 태극기 문신을 새겨 주었다고 전했다.



해방 후 김병조 선생이 소련군에 피검된 사실을 보도한 자료
(현대일보 1947년 03월 19일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병조의 친손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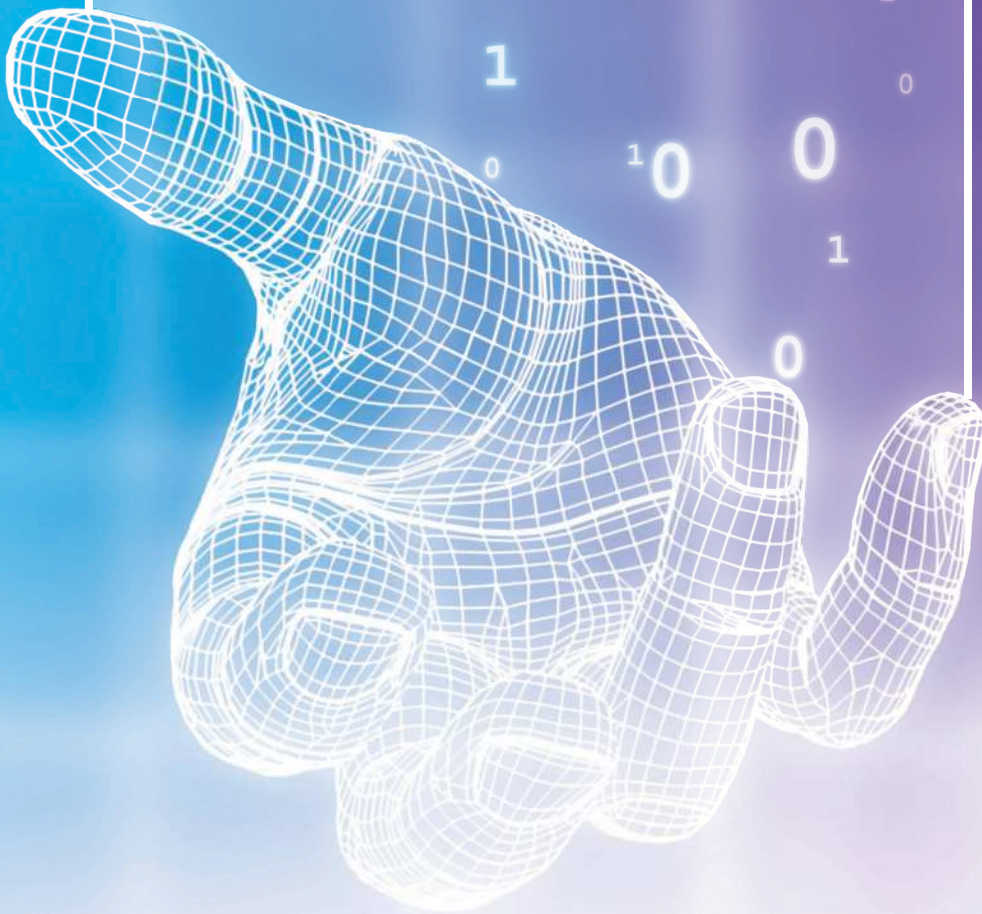
김병조 선생의 둘째 아들 김행식 목사

2019년 9월, 필자는 김병조의 친손녀인 김영옥 씨를 만났다. 김영옥 씨는 허심탄회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김병조의 둘째 아들 김행식 목사)는 독립운동가로서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가족에게는 0점짜리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선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삶. 그 누구도 알아주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던 그들의 선택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오랜 시간 동안 후손들은 김병조가 북한에서 사형됐거나 6·25 전쟁 기간 피살된 줄로만 알고 살았으나, 시베리아에서 옥사하시고 바이칼 호수 어딘가에 유해가 묻혀있다는 말은 큰 아픔이었다. 그래서였을까? 후손은 유해라도 모셨으면 원이 없겠다는 마음이었다. 쉽게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세월 속의 서운함, 서러움, 아픔은 말로 전달이 어려웠다. 후손은 한동안 그렇게 말을 잊지 못했다. 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⑦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힘 있는 지식’의 교육



글. 황규호(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교육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미래 사회의 학생들을 창의·융합 인재로 길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융합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종종 전통적인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을 폐기되어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폄하하는데, OECD의 「미래 교육 2030」에서는 역량 교육의 핵심 과제로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에서 지식 교육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COMPUTATIONAL



THINKING

AI 시대를 위한 교육의 변화 과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은 교육 분야의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AI 발달에 따른 교육의 변화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수업방법 등 교육 환경에 미치게 될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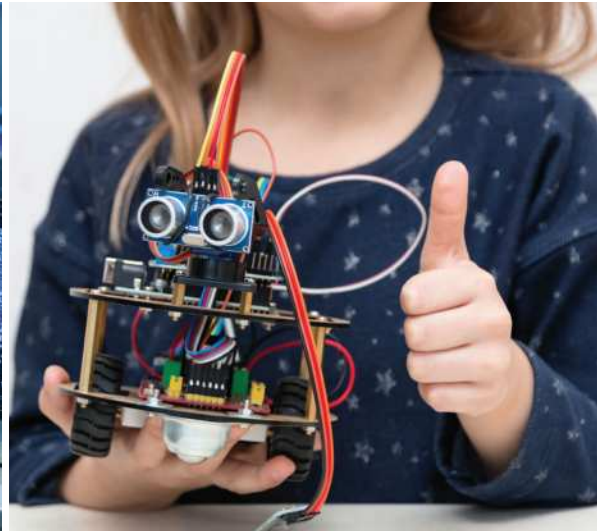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교육'

AI의 발달에 의한 수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AI가 교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 전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수학습의 방법 면에서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되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전망할 수 있다. 학습자의 개별적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AI 기기가 맞춤형 학습지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학습자의 여러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별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평가 맥락에서도 자동화된 채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평가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별로 활용 가능한 AI 기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 될 것이다. 이러한 AI 관련 기술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르는 수학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면 바로 풀이 과정까지 설명해주는 앱(QANDA)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은 종종 ‘새로운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질문 능력은 이제까지 각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져 온 질문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는 기존의 지식체제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구한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개념적 이해의 중요성’

미래 교육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변화의 과제는 AI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과 이를 길러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이미 강조되었던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Computational Thinking)과 이를 위한 도구적 기술의 하나로 Python(컴퓨터 언어의 일종으로 간결하고 생산성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등 컴퓨터 언어를 익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의 논리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적절한 수준과 범위의 수학적 기초지식, 예컨대 벡터와 행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AI 시대를 위한 교육의 과제가 넓은 의미의 SW 교육(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

육을 뜻함)에 국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핵심과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은 종종 ‘새로운 질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질문 능력은 이제까지 각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져 온 질문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는 기존의 지식체제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지식의 이해는 단편적 지식의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러한 질문이 어쩌서 중요한 질문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나 원리, 탐구 방법과 사유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뜻한다. 이러한 이해는 각 학문 영역의 핵심 지식과 원리에 대한 ‘개념적 이해’로 부를 수 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각 교과와 핵심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길러주어야 할 능력과 관련하여 OECD는 「미래 교육 2030」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긴장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 등을 포함하는 ‘변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미래 교육의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미래 교육 2030」에서는 역량의 특징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역량이 ‘지식’과 ‘기술’, ‘태도’ 및 ‘가치’의 총체적 결합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역량 교육이 지식교육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정체성을 지칭하며, 차별성은 그것이 일상생활 속의 지식과 차별화된 개념체제를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념적 이해와 힘 있는 지식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교과별 핵심개념과 원리 및 교과 고유의 사유 방식과 탐구 능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 예컨대 AI의 발달에 따른 감시의 문제, 가짜의 위조 문제, 편향성의 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찰 능력의 함양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AI의 발달과 디지털기기의 일상화가 가져오고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와 의식의 자동화 및 감정 통제 문제 등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나 사유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며, 인식과 사유의 본질에 대한 메타인지적(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인 분석도 앞으로의 교육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탐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K)

25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

Steve
Jobs
School

우리는 예전의 낡은 교육 체제의 틀 속에서 단순히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스티브 잡스 스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극대화되도록 놀이하듯 학습을 유도하는 교육방식을 통해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글.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미래형 학교

2013년, 네덜란드 여론조사 전문가인 '모리스 드 혼드(Mauris de Hond)'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즉 최신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학교를 세웠다.

그는 아이패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자신의 3살짜리 딸이 다닐 만한 학교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자신이 30년 전에 다니던 학교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음에 실망한 모리스는 이미 아이패드에

익숙해진 자신의 딸이 다니기에 적합한 학교, 즉 '스티브 잡스 스쿨'을 설립한 것이다.

이 학교의 교육 철학은 '유아혁명(toddler revolution)'에 근거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놀면서 세계를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오로지 오프라인에서만 뭔가를 배우도록 강제된다.

이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학교 교육에 실망한 모리스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 교육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학교가 바로 스티브 잡스 스쿨이다.



「The-K 리포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의 혁신학교 사례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쿨의 교육 특징

1	2	3	4	5	6
연령에 따른 학급 대신 4살까지 차이 나는 학생들로 코어집단을 편성하고 담임인 코치를 배정한다.	하루 일과는 코치가 주도하는 코어집단 활동(각 30분)으로 시작하고 끝맺는다.	6주마다 코어집단 코치는 학생, 학부모와 협의하여 각 학생의 '개별학습계획'을 세워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참여할 선택 프로그램도 정한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주로 아이패드를 활용한 개별학습을 수행하고, 오후에는 워크숍, 프로젝트 등 활동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다.	개별학습 시간에 학생들은 수학방, 언어방, 창의성방, 테크놀로지방 등에서 자유로이 학습하며, 교사들은 이들 방에서 교과 전문가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매일 일정량(60개의 계산 문제와 60개의 언어 문제)을 학습해야 하는 수학과 언어에서는 각 학생 수준에 맞추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 교육'

스티브 잡스 스쿨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학교다. 모리스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발명으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여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스티브 잡스 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스티브 잡스 스쿨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처리능력, 협업능력, 비판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21세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교과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교실도, 정해진 수업 시간표도 없다. 학생들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아이패드를 통해 '가상학교(virtual school)'에 접근해 자유롭게 21세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부분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학생의 개별 학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라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도 비교적 자유로이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녀의 방학일과 등교

일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 나은 미래 학교를 위한 발걸음

한편, 스티브 잡스 스쿨이 풀어야 할 몇몇 개선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개별학습에 활용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다. 개별학습용 SW 사용료로 학생당 월 9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학생 1인당 연간 108유로에 해당하며, 학생이 400명인 경우 학교가 연간 4만유로가 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

게다가 과도하게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스쿨로 전환을 검토하던 학교 중에 전환을 포기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러나 설립자인 모리스는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리더십을 길러준다면 새로운 학교 체제가 정착되고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러한 개선점이 보완되어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㉔



환경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뀐다

서울 녹천중학교

1995년에 개교한 녹천중학교는 공간혁신으로 새롭게 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한 학교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계획에 따라 공간의 쓸모와 모양새를 꾸준히 바뀐 녹천중학교는 달라진 공간 덕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전철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오롯이 자리 잡은 녹천중학교는 외관만 보면 그저 평범한 학교다. 그러나 학교 내부로 발걸음을 들이는 순간, 그 '평범함'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비범함'으로 바뀐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색다른 학습법으로 학교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간이 곳곳에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집단이든 수장의 혁신 없이는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법. 2016년에 부임한 손원석 교장은 환경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지대한 리더였다. “제가 2010년에 교감 발령이 난 이후부터 근 10년간 공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 왔어요. 공간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새롭게 부임해온 녹천중학교 역시 그에게는 변화와 혁신의 대상이었다. 어둡고 침침한 느낌의 학교를 변모시켜 학생과 교사에게 활력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는 게 목적이었다. 녹천중학교의 변화는 제일 먼저 학교 도면도를 펼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빈 교실이나 공간이 생길 때마다 그곳

01





02

01. 학생들의 휴식 공간인 홈베이스. 층마다 학년별로 나누어진 이 공간은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양쪽 복도에 미닫이 문을 달고 천정에 냉난방 시설을 해서 이곳도 교실로 활용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02. 복도 끝에 만들어진 탈의실. 누군가가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설치된 센서가 깜박거린다. 이 아이디어 덕분에 탈의실은 안전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다.
03. 소나방은 우드톤의 인테리어와 커피 향기, 잔잔한 음악이 있는 공간이다. 교사들은 이 공간을 통해 힐링하고 재충전 한다. 교사들이 직접 청소하고 관리한다.

을 따라다니며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학교 전체를 중구난방으로 만들 뿐, 보다 거시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앉던 곳에 앉고, 가던 곳에 가고, 변화보다는 안주를 택하는 ‘관성’은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매한가지인 법. 녹천중학교 역시 모든 공간을 학습 교실, 활동 교실, 휴식 공간, 교무실 공간의 4섹터로 나누고 움직이기까지 만만치 않은 저항과 부딪쳐야 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곳곳에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 간 학교 공간은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곳은 소나방이다. ‘소통과 나눔으로 기쁨 가득 찬 학교를 만듭시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곳은 교사를 위한 카페다.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편히 교사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무실 한복판이나 비어 있는 교실에서 했던 상담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상담의 질은 올라갔고,



03



04



05



06

- 04. 25년 전통을 가진 녹천중학교. 외양은 평범하지만 그 내부는 학생친화적이어서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 05. 2-6 위에 붙은 404는 4층에 네 번째 교실이라는 의미다. 학교 방문객 및 학부모들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번호판인데 처음 오는 사람도 쉽게 교실을 찾을 수 있어 반응이 좋다.
- 06. 형식을 파괴한 교실. 올해부터 아이들과 교사는 세로로 세워진 보드를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선 채 문제를 풀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 역시 한 잔의 커피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곳에 떡이나 과일을 가져다 놓고, 전체 메시지를 돌리면 알아서 먹고 가니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했다. 녹천중학교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간도 눈에 띄었다. 바로 탈의실이다.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탈의실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일선 학교에서는 절대로 만들지 못했던 이 공간이 복도 끝에 남녀로 나뉘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처음 탈의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슷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결국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바깥등이 깜박거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작년에 만든 이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학생들 역시 깜박이는 센서에 묘한 압박감을 느끼며 후다닥 옷을 갈아입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작지만 빛나는 아이디어는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교실에 분리수거함을 따로 설치하는 대신 청소도구함에 구멍을 뚫어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해 깔끔한 교실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 것. 또 서랍 없는 책상을 주문해 학생들이 사물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녹천중학교는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큰 변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밝아지고 교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다. 인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보내고 싶은 학교로 손꼽히면서 입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환경을 바꾼 것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놀랍기만 하다.

“청소도구함에 구멍을 뚫어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주문 제작했는데 나중에 업체에서 찾아왔습니다. 구멍 뚫은 청소도구함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말이죠. 돈을 받는 대신 사물함 위의 공간을 막아달라고 했고 쌍방 계약서까지 썼죠. 작은 아이디어로 예산 없이 교실을 개선한 경우였습니다.”

혁신 공간이 불러일으킨 변화

사방을 둘러본 녹천중학교는 학생 친화적인 학교였다. 어느 곳에 가도 학생들을 배려한 흔적들이 눈에 띄고 이는 학

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홈베이스’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린 대표 공간이다. 창고 공간으로 학생들은 거의 접근하지 않았던 죽은 공간을 층별로 예쁘게 꾸며 오로지 학생들을 위한 아지트로 만들어 준 것이다. 2층은 3학년, 3층은 2학년, 4층은 1학년이 사용하는 이 홈베이스에는 소파와 탁자, 의자 등이 놓여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몰려와 놀 만석이다. “이곳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가져온 아이디어를 다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적게라도 반영하니 굉장히 좋아들 했어요. 그 덕분에 이곳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생겼고 청소도 학생회에서 조를 짜 돌아가면서 할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의는 물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예활동실도 눈에 띈다. 소규모 대학강의실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가질 수 있고, 커튼을 열면 보이는 거울을 이용해 춤 연습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노는 공간을 봤으니 이제는 낙천중학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실을 둘러볼 차례다. 책걸상이 없는 교실, 책상 대신 투명한 보드가 세로로 놓여있는 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책걸상 앞에 칠판이 붙어 있는 뻘한 교실의 형태가 아닌, 환경을 바꿈으로써 교육 방법을 바꾼 교실은 학생들에게 창조

와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뚫어 넘친다. “책걸상이 없으면 학생들은 바닥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모둠 별로 용기종기 모여 앉아 측면에 붙어있는 칠판을 바라보거나 돛자리가 깔린 교실 바닥을 이용하겠죠. 세로로 놓인 투명 보드 역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마주 보고 문제를 풀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학생들은 이 방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을 타파하는 교실인 셈이지요.”

낙천중학교는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큰 변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은 밝아지고 교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다. 인근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보내고 싶은 학교로 손꼽히면서 입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 환경을 바꾼 것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놀랍기만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학생들은 도서관이 아니라 카페에서 공부하고, 시끌벅적한 힙합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달라진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학교 환경뿐이다. 낙천중학교는 “사람이 환경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사람이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K)



07. 토론, 회의, 수업,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예활동실. 커튼 뒤에 대형 거울이 달려있어 아이들이 춤 연습을 할 때도 그만이다.



08. 청소도구함과 분리수거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문에 뚫린 구멍을 통해 아이들은 쉽게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고 치우기도 용이하다.

09. 서랍 없는 책상. 이로 인해 교실은 한결 더 깨끗해졌고 수업 집중도는 더 높아졌다.



오늘, 생각하기

[+25] 그 쌤의 이중생활

Teacher





「그 썸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인 '비주얼 씹기'으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김차명 교사의 재능 넘치는 일상을 엿보세요. ▶

공유하다 나의 지식, 우리의 지혜

배곧초등학교 김차명 교사

일을 한다는 것,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것만큼 멋진 성취감이 또 있을까. 일생에서 대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데 손수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자유로운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려 발 벗고 나선 김차명 교사처럼 말이다.

글. 정은주 사진. 김도형



&

Contents Creator

콘텐츠, 재능 많은 교사들과 함께 만들다

교육에 관한 담론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의 정답이 존재한다. ‘틀렸다’가 아닌 ‘다르다’가 인정되어야 하는 분야. 시야를 넓히고 공유를 활성화할 때 가르침과 배움의 깊이는 곱절이 될 테다. 그래서 제안했다. 교사 개인의 콘텐츠를 함께 나누자고. 김차명 교사가 전국 교사 모임인 ‘참쌤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고, 또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미디어콘텐츠 팀장으로 수년째 참여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이름부터 흥미로운 참쌤스쿨은 전문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교사 모임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나 깨나 달고 사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6기가 활동 중인데, 전 기수 총 124명의 교사가 매달 모여 스터디를 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사가 직접 만든 교육 콘텐츠의 효과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그걸 증명해보고 싶어서 참쌤스쿨을 만들었어요. 저희의 모토가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사이면서, 직접 제작까지 한다는 게 특징이죠.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건 구현이거든요.”

정말이지 김차명 교사를 비롯한 참쌤스쿨 교사들이 지금까지 구현해낸 일들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국정교과서인 1·2학년 안전한 생활과 5·6학년



Contents Creator



교육에 관한 담론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수만권의 정답이 존재한다.
'틀렸다'가 아닌 '다르다'가 인정되어야 하는 분야. 시야를 넓히고 공유를 활성화할 때
가르침과 배움의 깊이는 곱절이 될 테다.
그래서 제안했다. 교사 개인의 콘텐츠를 함께 나누자고.

수학 교과서의 삽화를 그렸고, 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또한
선생님을 위한 다이어리와 학급 게시판 현수막 같은 굵지도
만들었다. 교육 자료도 꾸준히 제작해 제약 없이 공유 중이
다. 그 덕분인지 SNS 팔로워가 약 10만 명, 블로그 방문객
도 하루 1만 명을 거뜰히 넘어선다.

공유 문화, 퍼질수록 교실이 행복해졌다

문화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 비일상적이고 특별하게 여겨지
던 일들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려면 적잖은 시간
이 들지만, 변화는 분명 세상을 더 이롭게 할 터. 물론 진정
성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었을 때 얘기다.

김차명 교사의 경우 학생들을 향한 마음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 기왕이면 재밌게, 가능한 한 쉽게 배우고 가르쳤으
면 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다. 역량 있는 교사들이 모여 머리
를 맞댈수록 그 방법이 다양해질 테니 교육 콘텐츠 공유로까
지 생각이 이어졌고, 크고 작은 시도들이 헛수를 더하면서
어느덧 문화로 뿌리내렸다.

“옛날에는 똑같이 가르쳐서 누가 목표점에 빨리 도달하느냐
를 측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육이 개별화·다양화되었
어요. 따라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이 같은 문
화를 만든 게 참샘스쿨과 인디스쿨이에요.”

참고로 인디스쿨은 참샘스쿨이 속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로,
보다 큰 개념. 사람들의 연결을 돕고, 경험과 앎을 나누며,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참
샘스쿨과의 교집합이 있다. 만들어진 지 올해로 20년인데,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탄탄한 공유 토양이 되었다는 게 김차명



교사의 설명이다.

“현재 3세대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처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든 1세대의 토양으로 저 같은 2세대가 자랐죠. 1세대의 콘
텐츠를 집대성하고, 교사 모임을 만들어 스타트업처럼 운영
한 사람들이요. 지금은 교육계를 벗어난 곳에서 콘텐츠를
창조하는 3세대가 중심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고 참신하죠.
젊기도 하고요.”

비주얼 씹기, 그림으로 생각을 확장시키다

세대가 바뀐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시대가 변화했다. 교실의
모습이 바뀌었고, 학생들의 생각도 어른들의 그때와 견주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하지만 교실에 주로 머물다 보면 변화
에 둔감하기 십상. 그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을 둘러싼 미디어와 콘텐츠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게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

Teacher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은 이미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읽기와 독해 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과거에는 텍스트를 알아야만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영상인걸요. 학생들이 타자는 잘 못 쳐도 동영상은 잘 만들죠.”

그러므로 이미지의 특성인 직관성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가 10여 년 전부터 교실에 비주얼 씽킹을 불러들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비주얼 씽킹이란 쉽게 말해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이다. 예를 들면, 역사를 가르칠 때 그림을 그려 이해도를 높이고, 중간중간 지워진 부분을 학생들이 채우도록 하는 식. 텍스트 위주의 설명이라면 지루해했을 내용도 비주얼 씽킹이 적용되면 집중도가 확 올라간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다. 한 컷의 그림에 이야기와 정보를 꼭꼭 눌러 담아야 하는 까닭. 핵심은 ‘비주얼’보다 ‘씽킹’이기에 교사 입장에서는 전하려는 ‘무엇’과 더불어 ‘어떻게’라는 표현에 관한 질문을 거듭 품어야 한다. 다행히 연습한 만큼 실력도 는다고. 책을 읽은 후 한 권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는 게 그의 오랜 연습 방식이다.

전문가, 경험과 지식까지 두루 쌓았다

교사이지만 그는 최근까지 학교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현장과 콘텐츠, 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청소년미디어를 담당하게 됐다. 올해 3월부터는 2년간의 교육청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시 학생들과 마주 섰다.

“감사하게도 경기도교육청 근무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많이 했고,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셔서 일도 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현실적인 게 안 보인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 말고도 개인적인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경기교육연구소장과 EBS시청자위원회라는 타이틀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책과 전문적학습공동체지원방안 등에 관한 고민에 집중할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도 꼼꼼하게 마쳤다. 색다른 모임도 준비 중인데, 학부모들과의 독서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책을 한 권 정해 반 학부모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소통과 초연결의 시대, 교사들 간의 커뮤니티처럼 교실의 문도 활짝 열려야 하기에.

“외부 활동이 잦은 만큼 학교에서 더 잘해야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워낙 성취를 지향하는 성향이라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의 다양한 경험이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해요.”

경험은 분명 교사로서의 지혜를 길러줄 테다. 더불어 그의 바람대로 ‘교사가 최고의 교육 콘텐츠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도 할 테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로운 일. 교실을 바꾼 선순환의 발견이다. (K)

‘그 쌤의 이중생활’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5~35세 독자 여러분 중 열정 넘치는 이중생활로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나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혹은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이 지면에 담아, 많은 교직원분들과 공유하여 학교와 교실의 담장을 넘는 빛나는 꿈과 열정이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로 연락 바랍니다.

성공보다 성장을 지향하는 ‘업글인간’

E L E V A T E
Y O U R S E L F



업그레이드를 한국식으로 줄인 말인 ‘업글’은 네티즌 사이에서 무언가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지칭할 때 흔하게 사용된다. 최근 등장한 신조어인 ‘업글인간’은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자기계발형 사람들을 의미한다. 스펙 쌓기 형식의 자기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이고,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다. 업글인간에게 현재는 성장이라는 재미와 의미로 채워가는 즐거운 게임과도 같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나의 성장을 꿈꾸다

업글인간 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직업관과 경력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져 나타난 결과다. 주 52시간제의 확대와 급격한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다양해지는 노동형태, 플랫폼 경제의 확대 등은 이런 현상을 더욱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아닌 타인이 더 중요했던 시대, 체면과 겉치레, 비교우위, 경쟁과 성공이 중요했던 시대에서 이제 밖이 아닌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다.

일과 삶의 전방위적 성장을 꿈꾸는 업글인간이 계발 중인 영역은 건강, 여가, 능력이다. 즐거운 운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만드는 ‘몸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의 경지를 개척하고 깊이는 더하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다양하게 가공된 지식 섭취와 지적 세계를 확장해가는 ‘지식의 업그레이드’, 이 세 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핫한 몸, 답한 취미, 힙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업글인간의 자기계발 포인트다.

몸은 최고의 투자 대상

최근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면 흔히 운동선수들이 찍는 화보가 떠올라 어렵게 느껴졌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동안 체력, 건강, 자신감,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동시에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운동을 하지 않던 많은 사람에게도 인생에 있어 가장 멋진 순간을 남기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업글인간에게 몸은 최고의 투자 대상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런스타그램’이란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31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나온다. ‘운동하는 여자, 운동하는 남자’라는 해시태그는 인싸의 상징이 되고 있다. 운동으로 유명해진 일반인들은 ‘런예인’이라 불릴 정도다.

마라톤이 온 국민이 즐기는 페스티벌이 된 지는 오래되었고, 함께 즐기며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퇴근 후 몸을 가꾸고 운동습관을 만들기 위해 앱에 물을 만들어 기록을 경신한다. 몸 만들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고 말한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몸은 투자한 만큼 반드시 성장을 돌려주는 확실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취미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지 ‘덕업일치’를 향하다

나만의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하니 성취감도 맛볼 수 있다.

이들은 라틴 댄스 동호회, 프리다이빙, 커플 댄스, 요리 수업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긴다. 직장인인 면서 퇴근 후 글쓰기 강좌를 듣고 목공 수업에 참여하며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취미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지인 ‘덕업일치’를 향하고, ‘여행도 배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플로리스트 투어, 사진작가와 떠나는 캐나다 출사 여행처럼 답한 나만의 경험을 축적하려 한다.

예전의 영화 마니아는 온갖 영화를 섭렵하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세부 장르만 판다거나, 한 편의 영화를 수십 번 본다거나 하면서 깊이 파 내려간다.

재능공유 앱인 ‘탈잉’이란 플랫폼은 자신의 취미나 재능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음을 알려 준다. 탈잉에 가입한 튜터(Tutor)들은 중국어, 춤, 그림, 영상 편집, PPT 등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의미 있는 지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즐거움

직장인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도 퇴근 후 독서 모임에 참가한다. 지적 힐링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증가하고, 북리뷰 콘텐츠 유튜버들의 구독자가 늘고 있다. ‘책읽찌라’, ‘겨울서점’ 같은 인기 북튜버 채널의 구독자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 산업별 트렌드와 현업 종사자들의 인사이트를 담은 ‘퍼블리’는 지식 제공 서비스의 유료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은퇴 후의 삶을 일찍부터 고민하는 30~40대 직장인들은 관심 분야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책을 읽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연장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또 배운다.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이니 몸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지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즐거움으로 업글인간은 행복하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게 어때서?”라고 외치는 신인류! 하지만 배움의 열쇠는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멈추어 명료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㉔

목표가 다른 부모와 자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면 조바심과 긴장감으로 초조해진다. 그래서 3월에는 자녀에게 목표를 설정해나가고, 그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며,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간섭을 하기도 한다. 한편, 자녀는 뚜렷한 목표와 이유도 모른 채, 그런 간섭이 당연한 듯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속 빈 강정처럼 마냥 착한 아이 코스프레(Cospre)를 하는 이중적 양가감정을 지니게 된다.

글. 김동철(심리학 박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3월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고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되게끔 잘 키우는 것에서 목표의 시작점을 찾는다. 또한, 자녀가 올바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며 자녀가 설령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해도 자신이 가진 역량을 투자하여 자녀의 성공을 위해 물심양면 돕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부모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자녀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자녀 역시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모의 맹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을 리셋(Reset)하는 것이 요즘의 자녀 세대의 특징이다.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목표를 추구해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만의 문화, 정보가 뒤엉켜 서로의 목표는 이견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등 없이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틀 속에서는 서로가 추구하는 삶과 미래 목표가 결코 같을 수 없다.

목표란 것은 자신의 철학과 관심에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부모와 자녀의 목표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강요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미래 목표를 같이 하는 것보다 상대의 목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상기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성공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자, 지원을 가장한 독단적 사고일 수 있다. 자녀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질과 성향, 탄력적 에너지가 있기에 성공이 가능했던 것이지, 부모의 지원으로만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유로운 가치를 인정해 주고 부모의 과잉적 지원에 따른 애착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어떤 목표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최상의 지원이다.

자녀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목표

보통 자녀가 지닌 목표는 미래의 희망보다는 실패의 염려와 부정적 심리가 먼저 발동되어 경쟁 사회에서 몸부림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부모가 볼 때 낙담하고 형편없는 자녀로 비취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겪는 사회적 고통은 인간의 일반적 고통이며,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서 소통과 이해 없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이어가면 불안한 긴장의 연속 무대가 될 것이다. 예전에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했었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과 더불어 목표에 대해 부모와 소통해 보았는가를 질문하고 그들에 대한 불안도를 측정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목표가 없었으며, 목표보다는 사회 경쟁에 따른 두려움, 불안이 우선이었다.

소통 역시 또래 친구들과 가벼운 이야기는 있었지만, 부모와의 소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모 중심의 회유나 일방적 목표 강요가 많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가 지극히 낮아 자녀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목표를 알 수 없다.

자녀들 역시 부모와 소통을 거부하는 선택적 부정성을 스스로 만들고,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목표 설정조차도 누락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목표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다양한 사고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공감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것은 어려서부터 체득되고 감응되는 것인데, 부모는 그 역할을 해주는 기초적 토양이니 조금씩 근성 있게 자녀들과의 소통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멘토로,

자녀는 부모의 영원한 멘티로!

우리는 항상 인생이라는 거창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운다. 결국 그 목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 간에 목표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쉽사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가족의 현실이며, 가족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절 끝자락에 길을 잃은 철새처럼 열심히 퍼덕거리며 날갯짓을 하지만, 결국 목표의 끝이 정해진 사실을 아는 것과도 같다. 뇌리에 콕 박힌 목표 트라우마를 벗어 던지고 축 처진 어깨를 되찾아야 한다. 3월은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좋다. 작지만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며 관심과 실천을 함께한다는 작은 소망이 더 중요하다. ㉠



신인이지만
노련한
이 배우를 주목하세요

연극배우 **신상훈**

따지고 보면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이다. 광고인으로 22년, 대학교수로 18년을 보낸 그는 이제 배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 그에게 배우는 되찾은 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온 기회다. 놀 듯이, 즐기듯이 연기하지만 무대에 펼쳐지는 그의 연기는 프로페셔널 그 자체다. 배우로서는 신인이지만, 지나온 세월이 가져다준 경험과 경륜이 연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소문난 광고 뒤에는 그가 있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카피만 들어도 ‘아, 그 광고!’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 광고로 인해 침대는 가구가 아닌 ‘과학’이 되었다. 그 광고를 전혀 보지 못한 요즘 아이들도 이 카피를 구전으로 접했을 정도다.

“침대회사의 연구소에 가보니 엄청난 무게의 쇠공을 침대 스프링 위에 8만 번씩 떨어뜨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트리스 스프링이 몇 mm만 줄어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공학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뿐이라.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동원산업의 ‘바다가 좋다’ 등 한국 광고사에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긴 광고 뒤에도 그가 있었다. 국내 최초로 칸 광고제 동사자상을 받았고, 런던광고페스티벌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광고인으로서 최고의 성과와 영예를 모두 이룬 것이다. 국내 굴지의 광고대행사 오리콤에 입사해 기획이사까지 오른 후에는 대학으로 향했다. 때마침 교수로 임용된 한세대학교에 광고홍보학과가 생겼고, 그곳에서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지금이야 토론 수업이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토론 수업을 전격적으로 도입해 학생들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제자 중 70%는 지금도 광고홍보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제자 농사 하나는 제대로 지은 셈이다.



광고 전문가에서 대학교수 그리고 연극배우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했고, 정년퇴임 전 서울대 총연극회 ‘관악극회’에서 2~3회 공연을 하긴 했지만, 배우에 도전할 계획은 없었다.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교사였던 아내와 세계 일주를 하던 중 서울대 총연극회에서 같이 공연했던 후배 정진영 배우로부터 본인의 감독 데뷔작에 꼭 참여해달라는 섭외 전화를 받았다. 아직 여행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가온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는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기회를 잡았다.



그 후로 그의 이력은 자연스럽게 배우의 길로 가고 있다. 배우 정진영의 영화감독 데뷔작 「사라진 시간」에 출연했고, 극단 관악극회 회원 자격으로 연극 「망자 죽이기」 무대에도 올랐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장기 공연에 주연배우로 무대에 오르는 일은 그야말로 ‘도전’이었다. 우선 소화해야 할 대사부터 만만하지 않았다. 다른 배우와 호흡을 맞추려면 자신의 대사는 당연히하고 상대역의 대사까지도 외워야 했다. “서브 주인공의 대사가 130마디였는데, 제 대사가 330마디였어요. 대사를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의 전후는 물론 동선까지 모두 기억해야 했지요. 덕분에 농담 삼아 ‘이제 치매 걸릴 일은 없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대 이상의 호연을 펼쳤다는 평을 얻었지만, 이제 와 되돌아보면 당시의 연기는 아쉬움이 많다. 감정도 몸짓도 연구할수록 깊어진다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요즘은 드라마를 볼 때도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한다. 하나의 대사를 구현하기까지 노력한 배우의 내공을 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까닭이다.

“같은 대사도 누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더 세밀한 감정과 몸짓을 표현할 수 있게 두 배 이상 연구를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연기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상당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결침의 미학’

인터뷰가 진행된 날도 그는 영화 섭외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작하는 단편영화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다. 노년에 이르러 새로운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현대물리학에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빛이 파동으로 가다가도 어떤 우연에 의해 갑자기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버 세대일수록 이제까지 안 해본 일에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배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배역을 따는 일에 매달려 일상을 보내지는 않는다. 일흔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그의 계획은 ‘황진이처럼 사는 것’이다. 시·서·화·창(詩·書·畫·唱) 그리고 악기, 춤까지 두루 섭렵하는 것. 누구도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바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세운 청사진이다.

“일본에서 100세 노인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분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일흔 살에 30년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





배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배역을 따는 일에 매달려 일상을 보내지는 않는다. 일흔에 은퇴한다고 가정해도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 100세 시대에 그의 계획은 ‘황진이처럼 사는 것’이다. 시·서·화·창(詩·書·畵·唱) 그리고 악기, 춤까지 두루 섭렵하는 것. 누구도 자신의 수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는 바람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세운 청사진이다.



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입버릇처럼 ‘3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하니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큰 그림만 그려 놓고 나머지는 우연의 법칙대로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을 행복한 운명으로 이어가는 비법 중 하나는 ‘걸침’이다.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의 호를 ‘걸침’으로 정해두고 이를 실제 생활에도 적용해왔다. 지금도 그는 하루는 시를 쓰고, 또 하루는 악기를 다루며, 어떤 날에는 그림을 그리고 운동도 한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각과 기회들이 생겨난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인 ‘호이징가(John Huizinga)’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유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시니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대화 주제가 건강과 돈이에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죠. 저는 시니어일수록 놀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방안을 하나 아닌 여러 개를 만들어 두면,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서 재미를 찾을 수 있죠.”

한 인터뷰에서 그는 “예술가는 똑같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두가 예술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술가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다. 사소한 것에서 발견하는 색다름. 그 묘미를 알기에 배우로서의 연기도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㉔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이들의 낙원, 말레이시아



M A L A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유럽 사람들에게 좋은 휴양지로 널리 알려졌고,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잠시 피지나 몰디브, 푸켓 등의 그늘에 가려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말레이시아를 찾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많은 명소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 동쪽의 사바(Sabah) 주와 사라왁(Sarawak) 주가 대표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사바 주에는 크고 작은 휴양지들이 많고, 사라왁 주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들이 많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Y S I A



깨끗하고 한적한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는 크게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서 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서부 지역인 '동 말레이시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동 말레이시아에 속한 사바 주의 '코타키나발루'는 신혼부부와 가족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인기 여행지다. 가장 큰 매력으로는 오염되지 않은 섬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의 권할만한 휴양지로는 사피 섬, 마누칸 섬, 마무틱 섬, 술릭 섬, 가야 섬 등으로 이뤄진 '툰구 압둘라만 해양국립공원'을 꼽을 수 있다.

이른 아침이면 코타키나발루 선착장(사진 1)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인근 섬으로 피크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찾아가는 사피 섬은 선착장에서 모터보트로 15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이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사피 섬에서는 더욱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숙박시설은 물론 불필요한 위락시설도 없기 때문에 잠시나마 자연의 일부분이 되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섬에 서식하는 원숭이를 관찰하며 가벼운 트래킹을 하거나,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마누칸 섬(사진 2)은 사피 섬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다. 산장 형태의 숙박시설, 간이 축구장, 수영장 등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사피 섬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반면 마누칸 섬은 자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리조트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누칸'이라는 이름은 남중국해에 서식하는 물고기인 '마누칸'에서 유래됐다. 좀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클리어스 리버 크루즈'에 도전해 봐도 좋다. 코타키나발루에서 90km쯤 떨어져 있는 클리어스 강(사진 3)에서 진행되는 크루즈는 보통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 끝난다.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맹그로브 숲에 사는 긴코원숭이도 찾아보고, 해가 지면 반딧불이도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01. 코타키나발루 선착장
02. 마누칸 섬의 선착장
03. 리버 크루즈 명소인 클리아스 강(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04. 프칸 나발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키나발루 산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05. 캐노피 워크웨이에서 내려다 본 열대우림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06. 코타키나발루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수상가옥



동남아시아의 최고봉, '키나발루 산'

코타키나발루에는 초보자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산들이 많다. 산악 등반은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멋진 방법 가운데 하나다.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산은 해발 4,095m의 '키나발루 산'[\(사진 4\)](#)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키나발루 산 일대는 지난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말레이시아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적인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한 키나발루 산은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산이 워낙 높다 보니 고도에 따라 각기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낮은 지대는 열대우림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중간 지대는 참나무, 무화과나무, 철쭉나무 등과 같은 온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높은 지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산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키나발루 산이 높기는 하지만 준비를 잘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등산로가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가파른 암벽지대에는 로프도 마련돼 있다. 키나발루 산의 본격적인 등반은 해발 1,564m 지점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발 2,000m 이상부터는 걷는 속도를 줄이며 고도에 적응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자신의 평소 체력만 믿고 방심하다 고산증세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04



05



06



07



08



09



10

- 07. 사라왁 원시부족의 전통공연(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 08. 해적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요새인 포트 마르게리타
- 09. 호젓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마이 비치
- 10. 다마이 비치의 아름다운 석양
- 11. 구농물루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들
(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 12. 이반족의 주거공간인 롱 하우스(말레이시아관광청 제공)

첫째 날의 등반은 해발 3,272m 지점의 '라반 라타 레스트하우스'에서 마친다. 잠시 산장에서 휴식을 취한 후 새벽 3시쯤 일어나 서둘러 등반을 시작해야 한다. 그 래야만 키나발루 산 정상에서 장엄한 일출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키나발루 산 등반이 힘들다면 인근의 포링온천 지역에 있는 캐노피 워크웨이(사진 5)를 다녀와도 좋다. 울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 놓인 높이 41m, 길이 157m의 출렁 다리를 건너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키나발루 산 근처의 프 칸 나발루 전망대에서 키나발루 산 전체를 감상할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키 나발루 산까지 가는 길에서는 말레이시아 특유의 수상 가옥(사진 6)들을 볼 수 있다.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사라왁'

사라왁은 말레이시아 원시 부족들의 문화가 잘 보존된 곳이다. 그들의 독특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사라왁 컬처럴 빌리지'다.

사라왁의 주도인 쿠칭에서 35km쯤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는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부족의 전통공연(사진 7)이 펼쳐진다. 사라왁은 영국인 제임스 브룩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1841년 당시 사라왁은 브루나이의 영토였는데 제임스 브룩이 인근 해역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들을 소탕한 후 브루나이 술탄으로부터 영토를 받아 사라왁 왕국을 세웠다. 그 후 1888년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지난 1963년에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사라왁은 지난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슬리핑 딕셔너리」로 인해 또다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영화 「슬리핑 딕셔너리」는 1930년대 사라왁을 배경으로 영국 군 젊은 장교와 이반족 처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휴 댄스와 제시가 알바가 각각 남녀 주인공을 맡았으며 이반족 원주민 600여 명이 보조출연자로 얼굴을 비쳤다. 사라왁의 관문인 쿠칭에는 곳곳에 아기자기한 명소들이 숨겨져 있다.



11

TIP

친환경적 여행 형태, 에코 투어리즘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낭비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에코 투어리즘(Eco-tourism)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졌다. 에코 투어리즘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줄이면서 숲이나, 바다, 산, 강, 동물 등을 관찰하는 친환경적 여행 형태'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나 지난 1983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에코 투어리즘'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남미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의 밀림, 호주의 열대우림 등이 좋은 여행지로 손꼽힌다. 말레이시아에도 에코 투어리즘 명소가 많다. 특히 사라왁의 정글 트래킹 명소인 니아국립공원과 람비르힐스국립공원이 유명하다. 니아국립공원에는 그려진 지 1,000년이 넘는 벽화로 유명한 페인티드 동굴이 있다. 동굴을 구경하고 나서 밀림 속으로 더 들어가면 '부킷 카숏'과 '마두'라 불리는 오솔길이 나타난다. 이 근처에는 400m 높이의 석회암을 오르는 등산로와 동식물을 관찰하는 코스가 있다. 람비르힐스국립공원은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곳이다. 저지대에서는 양치식물과 육생 난초, 고지대에서는 관목과 식충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사라왁에서 정글 트래킹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대략 3월부터 10월까지다.

*2020년 2월,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에 의한 '여행자제 권고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여행경보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쿠칭의 관광명소인 고양이 박물관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고양이를 모델로 한 각종 스티커를 비롯해 고양이를 주제로 한 많은 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쿠칭 시내를 가로지르는 사라왁 강 연안에는 해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요새인 '포트 마르케리타'(사진 8)가 있다.

사라왁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인 '다마이 비치'(사진 9)는 말 그대로 '다마이(평화)'를 연상케 하는 자그마한 바닷가다.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곳을 피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려는 여행자들에게 아주 제격인 명소다. 특히 해 질 무렵의 석양(사진 10)이 장관이다.

소중한 추억, '룽 하우스 홈스테이'

자연환경이 독특한 사라왁의 몇몇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지난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농물루국립공원'(사진 11)이다. 이 세상의 기기묘묘한 동굴들을 모두 모아 놓은 듯한 이곳은 말 그대로 '동굴의 천국'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굴인 바람 동굴과 클리어워터 동굴은 그 길이가 무려 100km에 이른다. 구농물루국립공원의 4개 동굴(사슴 동굴, 바람 동굴, 클리어워터 동굴, 랭 동굴)은 하루 일정으로도 탐사가 가능하다.

'바코국립공원'은 1957년 사라왁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바코 국립공원에서는 정글 트래킹을 하다 운이 좋으면 이 지역에 서식하는 긴코 원숭이를 만날 수도 있다. 사라왁의 원시종족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부족은 이반족이다. 이반족은 오랜 옛날부터 용맹스러운 부족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주로 밀림의 강변에다 '룽 하우스'(사진 12)라 불리는 긴 집을 지어 놓고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가구 이상이 함께 생활한다. 룽 하우스의 크기는 대략 길이 100m, 폭 20m 정도이며 땅바닥에서 2~3m쯤 떨어져 있다. 열대우림에서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 형태다.

사라왁에서는 원시 주거 형태를 이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지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룽 하우스 홈스테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자들은 사라왁의 밀림을 걸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원주민들과 하룻밤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된다. ㉠



12



포근한 햇살처럼 따스하게

다시 피어난 우리의 봄

스승과 제자의 원주 여행기

이두이

(가톨릭상지대학교 도서관장)

혼자서 알려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스승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하다. 마침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그것은 삶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을 잡았다고 할만하다. 진정한 친구만큼이나 귀한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글. 김유리 사진. 권대홍



엄영애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명예교수)



인연이 시작된 봄, 만학도 대학에 가다!

살면서 수많은 선생님을 만나며 사제지간의 연을 맺지만, 그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녹록지 않은 삶의 순간들을 지나며 연락이라는 것이 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오늘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 이두이(세레명 클라라) 가톨릭상지대학교 도서관장의 사연이 특별했던 이유였다. 이두이 관장은 『The-K 매거진』 편집실에 보낸 사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1998년 늦은 나이에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만학도였던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신 지도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아름다운 동행을 기회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두이 관장과 함께한 스승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엄영애 명예교수였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녀님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도 받고 외출을 줄인 편이었는데,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기회가 될 때 제자와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나를 생각해서 신청한 건데 당연히 함께해야죠.” 한참 나이 어린 제자지만, 엄영애 교수는 이두이 관장에게 ‘수녀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존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톨릭 학교이기에 수녀님이 학생으로 온 것은 이상하지 않았지만 나이 든 학생이자 수녀인 제자를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제가 지도교수이기도 해서 담임 선생님처럼 학교생활을 함께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직도 제 눈에는 클라라 수녀가 20년 전 그 모습으로 보여요.”

책과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찾은 첫 번째 여행지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노후를 보내며 『토지』 4~5부를 집필한 자택이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존경하는 소설가의 자취를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두이 관장에게 학교 진학은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학교에 편입하게 된 것은 사실 생각도 못 했던 일이었어요. 수녀원 입회 전 전산을 전공했고 우연한 기회에 준사서 자격 증은 있었는데 공부를 더 하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었는데 책임 수녀님이 편입을 제안하셔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학교에 가라 하셨으면 아마 고민했을 텐데, 사서 일을 하며 편입 제안을 받으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만날 수 있었어요.”

열정으로 가르친 스승, 실천으로 보답하는 제자

두 번째 장소인 용소막 성당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유럽의 어느 성당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성당 외관에 감탄사를 터트렸다. 내부에 들어선 이두이 관장은 차분하게 성당을 둘러본 후 짧은 기도 시간을 가졌다. 스테인드글라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포근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엄영애 교수는 이두이 관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처음 수녀님을 보았을 때 선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엄청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죠. 추진력이랄까? 뭔가 해낼 거 같다는 느낌이 강했죠. 하다못해 뭘 가르치면 그것을 습득하는 능력도 남달랐고요. 그러다 보니 나도 더 열심히 가르치려 노력하게 되고 스승을 긴장시키는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기도를 마친 이두이 관장이 말을 이어갔다. “사실 그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교수님이 밥 먹여 가면서 저를 공부시켰어요. 영양보충 시켜준다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고기를 사주셨는데 지금도 서울에 갈 일이 있어 찾아보면 잘 먹어야 한다며 맛있는 걸 사 주세요. 특히 대학원 다닐 때 학교를 가야 하면 교수님이 기차역까지 절 데리러 와주시기까지 했죠. 더 감사한 건 그 당시에 교수님이 부담 느끼지 말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늙은 제자가 와서 힘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힘 빠져서 그러는 거야’라고요. 정말 저는 교수님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시다.”

독서 예찬, 책이 사람을 만든다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인 ‘뮤지엄 산’은 종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합쳐진 종합 뮤지엄으로 일상을 책과 함께하는 두 사람이 가장 흥미롭게 여행한 장소였다. 종이의 역사와 자료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 엄영애 교수는 사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톨릭 학교이기에 수녀님이 학생으로 온 것은 이상하지 않았지만 나이 든 학생이자 수녀인 제자를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어요. 제가 지도교수이기도 해서 담임 선생님처럼 학교생활을 함께하다 보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직도 제 눈에는 클라라 수녀가 20년 전 그 모습으로 보여요.”





“사서들은 학문 전반에 관한 지식을 넓게 가지고 있는 편이죠. 목차와 서론을 꿰고 있어야 하니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될 수 밖에 없어요. 단지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에 다가갈 수 있게 구성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포털의 연관검색어 같은 것도 결국 우리 학문에서 파생된 영역이죠. 시대가 변한 만큼 전공자들이 포털 업체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이에 이두이 관장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덧붙였다.

“도서관은 책과 관련한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죠. 일단 도서관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다면 책과 친해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만화책도 구비를 하고 있고, 독서 토론, 독서 치료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 깊어진 사제의 정(情)

이튿날, 두 사람은 ‘원주한지테마파크’를 끝으로 여행을

마무리했다.

“저는 사서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 보통은 책이 좋아서 도서관에 간다는데 저는 책 이전에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책이라는 매개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껴요. 또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늘 활력이 넘치고요.”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 예정인 이두이 관장이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엄영애 교수가 깜짝 놀란 듯 말을 이었다. “제 은사님이신 이봉순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시절 스승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서는 사람을 좋아해야 하고, 책과 도서관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제 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놀랍네요.”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대를 이어 내려온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많이 닮아 있었다. 엄마 같은 스승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생각한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고. 그것이 스승의 사랑에 보답하는 제자의 도리이자 다른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니까. ㉞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이두이(가톨릭상지대학교 도서관장)

“은사님과 함께한 선물 같은 시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주어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늘 받기만 했는데 작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네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는데 좋은 기회에 은사님과 뜻깊고 소중한 여행을 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한국교직원공제회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엄영애(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명예교수)

“잊지 않고 찾아준 제자와의 행복한 만남”

좋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준 제자 덕분에 30여 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했네요. 함께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던 여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받는 사람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The-K 매거진」이 만들어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thekmagazine@ktcu.or.kr

지난 1년간 총 27명의 회원님이 아름다운 동행에 신청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하다 보니 모든 분을 초대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소중히 보관하고, 추후 시의적절한 사연을 선정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박경리문학공원

박경리문학공원은 작가 박경리의 소설 혼이 담긴 공간으로 장편소설 ‘토지’의 산실이다. 이곳엔 박경리 선생이 1980년 서울 정릉집을 떠나 원주 단구동 742번지로 이사해 토지 4부와 5부를 집필했던 옛집을 비롯해 박경리 문학의 집, 박경리 문학공원 북카페가 있다.

☎ 033-762-6843

📍 강원 원주시 토지길 1



용소막성당

병인박해 때 피난 온 신자들이 이곳 부근에 교우촌을 형성하여 신앙을 지켰고, 1904년에 강원도에서는 3번째의 용소막 성당이 이곳에 지어졌다. 1915년 벽돌 양옥 성당을 완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1988년 11월에는 용소막 출신 사제로 성모영보수녀회를 설립했고, 성서 번역에 힘썼던 선종완 신부의 공적을 기리는 유물관을 건립했다.

☎ 033-763-2343

📍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산로 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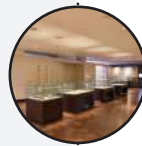


뮤지엄 산

산속에 감춰진 뮤지엄 산(Space Art Nature)은 노출 콘크리트의 미니멀한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의 설계로 2013년 5월 개관했다. 뮤지엄은 오솔길을 따라 웰컴 센터, 잔디주차장을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그리고 제임스텔관으로 이어져 있다. 문명의 번잡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은 뮤지엄에서 휴식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 033-730-9000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원주한지테마파크

한지의 어제와 오늘을 한자리에서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지로 표현한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지가 가지는 역사적 우수성과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을 체험할 수 있다.

☎ 033-734-4739

📍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공포와 공존 그 사이, — 바이러스



전 세계가 긴장 상태다.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때문이다. 덩달아 지구상의 생명체와 늘 함께해온 바이러스의 존재감이 이슈로 떠올랐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자, 한편으로는 공존의 대상인 바이러스에 대하여.

글. 편집실

160만 중 가운데 밝혀진 것은 단 1%

바이러스는 항상 인류와 함께였다. 또한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나 함께일 테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익숙하게 불리고 쓰이는 것과는 별개. 자연계에 존재하는 160만 종의 바이러스 가운데 실제 파악된 것은 1%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 내일 아침 불쑥,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예로 들면 쉽겠다. 코로나19는 사람 등 포유류와 조류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돌기처럼 튀어나온 표면이 왕관을 닮아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Corona’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변이가 많아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체 전염 코로나19는 총 7종이다. 원래는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다 변이를 일으켜 사람에게까지 넘어왔다.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있으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처럼 수많은 사망자를 내기도 한다. 참고로 사스는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로,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로, 다시 사람에게로 옮겨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백신이 있어야만 치료 가능한 감염질환

자칫 바이러스를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무조건 경계하는 태도는 금물. 약 1만 종, 100조 개에 달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이미 살고 있는 까닭이다. 체중의 약 2% 정도를 차지하는 이들은 장내, 머리카락 등에 존재하면서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바다에 엄청난 양의 탄소를 비축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것 역시 바이러스다.

문제는 돌연변이다. 변이가 일어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건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크립-콩고 출혈열, 필로 바이러스(Filoviridae), 라싸열(Lassa fever)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큰 차이가 드러난다. 대부분의 세균이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반면 바이러스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이 공포스러운 건 그런 이유다. 당장 치료에 필요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세균은 독립적으로 분열하고 증식해 살아갈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세포에 기생하며 증식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즉, 독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해 반드시 숙주가 필

요한 터. 이 같은 특성은 백신 개발에 이용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들어가 증식하고 증식이 끝난 바이러스들이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막는 원리다.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1339'

지금 이슈인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다. 막연하지만 조심하는 방법뿐이다.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지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 기침이나 재채기로 피해를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손 씻기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기 때문인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음식을 집어 먹는 등의 행위, 감염자와의 악수 등 신체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더불어 증상에 대해 숙지할 필요도 있다. 37.5도 이상의 발열, 두통,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이 독감 혹은 감기와 비슷해 착각하기 쉽지만,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독감보다 증상이 가벼운 편이며 초기 증상 또한 복합적이기보다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폐렴 증상을 동반하는 것도 특징이다.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의 복제가 일어나는 잠복기를 가진다.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전화 '1339(질병관리본부)'로 문의하고, 자가 격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가기를, 무사하게! **!K**

TIP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세정제로 손 깨끗이 씻기

세정제로 손바닥을 비롯해 손가락, 손등까지 꼼꼼히 문지르며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특히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어야 빈틈이 없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또한 기침 후에는 혹시 묻어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손을 씻는 게 안전하다.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기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 가도록 착용한 후 코와 볼 부분을 밀착시키는 게 올바른 착용법이다. 사용한 마스크는 외부에 침방울이 묻었을 수 있으므로 손으로 만지는 건 금물. 재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역시 만진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지금, 쉬어가기

더-쉽

Indonesia
인도네시아



Bali
발리

낭만 가득한 ‘생활 여행자’의 삶이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발리 한 달 살기’

내가 여행을 즐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길을 잃기 위해서다. 목적지로 가는 사이 마주하게 되는 우연한 일들이 참 좋다. 발리는 길을 잃어도 좋은 곳이다. 우연이라는 보물들이 많을 것 같은 기대감이 충만한 곳.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면 발리는 누구에게나 남들은 만나지 못한 특별한 길이 되어줄 것이다.

글_사진 김승지 작가(『아이와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저자)

- 01. 꾸따 타운하우스, 테라스와 수영장, 편의시설을 갖춘 가족형 레지던스
- 02. 논과 구름 사이에 위치한 풀빌라 숙소
- 03. 바버샵에서 이발을 하는 즐거운 경험
- 04. 빼빼도 마켓, 외국인 체류자가 많이 찾는 마켓으로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한다.
- 05. 발리전통가옥 집앞에 설치된 뻬조르



01



02

Bali — 전 세계 여행객을 불러들이는 신비의 나라, 발리

발리는 고유의 종교와 예술, 문화와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2만여 개의 힌두교 사원이 있고, 1년 내내 크고 작은 종교의식이 이뤄지는 ‘신들의 섬’이자 ‘축제의 섬’이다. 발리 사진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풍경이 울창한 숲과 커다란 나무, 계단식으로 펼쳐진 논이다.

관광객이 밀려오면서 일부 상업화됐지만, 어디를 가도 자연을 만날 수 있고 여전히 특유의 색깔과 개성은 잃지 않고 있다. 즐길 곳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지상낙원이기에 럭셔리

한 리조트에서 머무는 여행만 아니라면 예산에 맞춰 숙소를 고를 수 있고, 물가도 저렴한 데다 발리의 치안은 어디를 가도 좋다. 발리의 북쪽 우붓은 전 세계 요기(yogi, 요가 수행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남쪽 꾸따와 스미냇은 서퍼들의 천국으로 불린다.

덕분에 매너와 교양을 갖춘 여행자들이 많고,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아 아이들과 지내기 편한 분위기다. 이 모든 것이 ‘낭만적인 타향살이’에 딱 맞아떨어진다.



03



04



05

Native — 발리에서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새 소리,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푸른 자연과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영어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한 곳, 발리는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데 필요한 최적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수영장이 딸린 빌라 숙소를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현지인과 같은 일상을 체험하기 쉽다.

아침에 일어나 숙소 근처를 느긋하게 산책하고,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와 신나게 수영을 하며 보내는 평온한 하루. 밤이 되어 집안 곳곳 주렁주렁 옷걸이에 걸린 빨래가 실랑거리고, ‘치르르르’ 벌레 소리를 들으며 발리의 정취에 빠져있노라면 정말 멋진 여행 생활자가 된 듯 낭만적 기분에 젖어 든다.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도 하고, 바버샵에서 아이 이발도 하고, 브런치 카페에서 맛난 식사와 차를 즐기면 일상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06



07

06. 띠리따 엄불 사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07. 발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사 행렬
08. 발리에서 머문 깔끔하고 저렴한 숙소, 카라카라인
09. 우붓 풀빌라에서 바라본 라이스뷰
10. 풀빌라에서 수영을 즐기는 아이들

Culture and Art — 문화예술 체험과 신나는 액티비티가 공존하는 곳

발리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옷을 갖춰 입고 여러 명이 줄지어 지나가는 현지인들의 행사 장면이다. 입고 있는 의상이 어찌나 깔끔하고 화려한지, 행렬이 지나갈 때면 넋을 놓고 보게 된다.

곳곳에 사원과 유적이 있고, 일부 사원에서는 전통 공연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발리의 몽마르트로 불리는 우붓에는 유명한 미술관과 전시관이 많다.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교와 문화가 넘치는 곳이 발리다. 몽키 포레스트, 발리 사파리, 버드파크 등 특색 있는 테마파크가 많고, 요가, 서핑, 래프팅과 트래킹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저렴하고 편하게 마음껏 즐길 수 있다. 특히 서핑과 요가는 회당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환경에서 집중해서 배울 수 있어 발리 한 달 살기의 꽃으로도 비유된다.



08



09



10

Lodging — 발리에서 숙소 정하기

‘휴양의 천국’이라 불리는 발리는 고급 휴양을 즐기는 여행자부터 신흥 여행객, 가족 여행객, 장기 배낭 여행객, 서퍼까지 다양한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다. 때문에 숙소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숙소 형태는 크게 호텔과 레지던스형 숙소(리조트, 빌라) 그리고 풀빌라가 있다.

풀빌라는 발리의 대표적인 숙소로 많은 사람이 발리로 모여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색적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즐길 수 있다. 레지던스형 숙소는 수영장

을 품은 ‘ㄷ자’ 구조가 많은데, 테라스가 있고, 호텔식 로비와 깔끔한 객실, 취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우붓에는 정글 속, 논밭 사이, 우붓 중심가 등 다양한 위치에 개성 있는 숙소가 많다. 특이한 점은 오션 뷰(바다 전망)보다 라이스 뷰(Rice Field View, 초록 논을 볼 수 있는 전망)가 훨씬 비싸다는 것.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관광지라 오래된 숙소가 많다. 별레에 거부반응이 심하거나 아토피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11. 우붓의 정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12. 팅리뵤란 전통 마을
 13. 꾸따 비치의 선셋
 14. 울루와뚜 불가리 리조트의 풍경

TIP

발리 한 달 살기 준비는 이렇게!

어떤 여행을 꿈꾸는지에 따라 여행 경비, 숙소, 스케줄 등이 확연히 달라진다. 발리의 큰 장점은 어떤 여행이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을 맞아 장기로 보내는 여행이라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발리는 항공권을 제외하면 저렴하게 한 달 생활비로도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항은 대한항공만 운행되기 때문에 해당 마일리지 활용이나 신용카드 프로모션 등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대기가 가능한 저렴한 티켓에 예약을 걸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직항보다 경유가 저렴해서 일정이 여유롭다면 추천하지만 어린 아이가 있다면 직항을 권한다. 공산품이 다양하고 저렴해서 현지에서 구매하면 되고, 김치, 라면, 쌀 등 한국 식재료도 구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가볍게 출발하되, 식용유, 설탕 등 조미료는 대량 포장에 많이 소분해 담거나 빈 용기를 가져갈 것을 권한다.



City — 매력 가득한 발리의 주요 도시들

발리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매력이 뚜렷하다.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좋은 곳 우붓, 현지인처럼 머물고 싶다면 사누르, 서퍼들의 파라다이스이자 변화한 비치를 즐길 수 있는 곳 꾸따, 발리의 청담동으로 스타일리시한 삶이 준비된 스미낙과 짱구, 해산물의 천국으로 일몰이 아름다운 울루와뚜, 색다른 발리를 즐길 수 있는 섬 롬복과 길리까지. 원하는 여행 스타일에 맞춰 고르면 된다. 머무는 여행을 좋아한다면 우붓이나 꾸따를 거점으로 원데이 투어를 이용하는 일정을 권한다.

반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여러 곳으로 이동하길 원한다면 우붓, 꾸따/스미낙, 롬복/길리 등을 1주일 단위로 즐기는 것도 방법이다. 발리 공항에서 꾸따, 스미낙, 사누르는 매우 가깝고, 우붓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길리나 롬복을 제외하면 주요 관광지가 차로 1시간 내외, 길게는 1시간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평소 패키지나 일정을 짰 채 단기 여행을 주로 다녔다면,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그랩(동남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공유차량 업체로, 동남아 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다)을 이용해 발리에서 자유여행을 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㉞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The-K 마음챙’과 함께하세요!

“행복한 교직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최대 5회까지 전액지원”

해마다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급증하는데 이들의 명예퇴직 신청 사유를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은 데다가, 교권 추락이 심해지며 회의를 느끼는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돌 떠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교직원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대치가 높은 직업군이기때 타 감정 노동자들에 비해 자신의 상처와 고통,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사가 창의적이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기에, 힘든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직 회원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마음챙’이 나섰습니다. 학생, 동료 교사 때로는 가정에서의 관계로 힘들고 지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 ‘The-K 마음챙’을 힘껏 두드리세요. ‘The-K 마음챙’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전화, 화상 상담으로 언제든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근무 특성상 상담센터에 내방이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The-K 마음챙’은 전화와 화상 상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회원 후기

“상담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화 상담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업무로 지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는 삶의 곳곳에서 조금씩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에서 벗어나 일상의 활기와 즐거움을 되찾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The-K 마음챙’이 안내합니다.

회원 후기

“평소에 털어 놓지 못한 책임감이나 혼자만의 생각들과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삶에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삶이나 직무에 있어서도 많은 만족감을 얻게 되었어요.”

‘The-K 마음챙’을 통해 내면을 오롯이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일터와 가정에서 바쁜 교직원들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로부터 떠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The-K 마음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세요.

회원 후기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로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경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제가 제 마음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힐링과 리프레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The-K 마음챙’에는 단순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오감 만족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리프레시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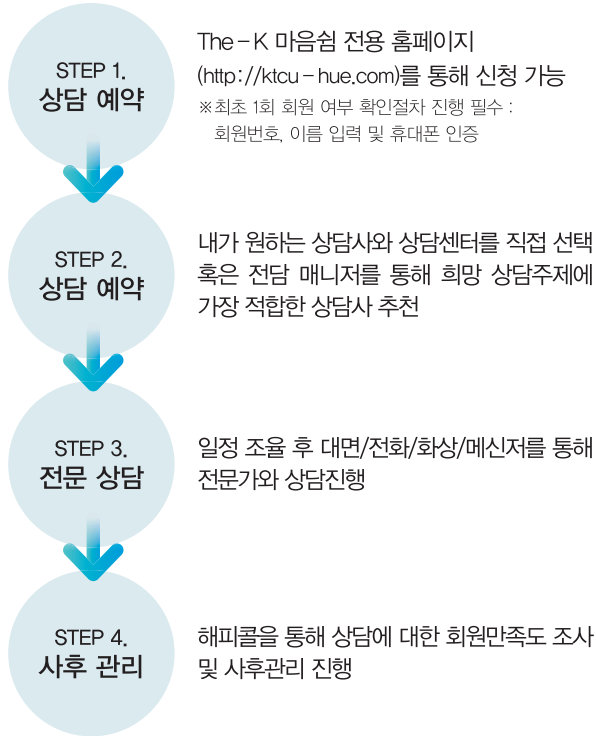
회원 후기

“잠시나마 업무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강사님께서도 너무 친절하시고 중간 중간 해주시는 멘트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비스의 성격상 후기를 남겨주신 회원님들의 소속과 성함은 밝히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위 후기들은 ‘The-K 마음챙’ 서비스를 이용하신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을 밝힙니다.



The-K 마음심 이용절차



상담내용

-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현직 회원
- 횟수** 1인당 최대 5회기 가능
- 기간** ~ 2020. 12. 31.
-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협의 후 가능)
- 장소**
- 대면상담: 전국 상담센터 및 신청회원이 원하는 장소(협의 후 결정, 자택 제외)
 - 화상 및 전화상담: 자택 내 본인의 PC 및 휴대전화 활용

※ 모든 상담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상담주제

- 직장** 교권침해, 직무스트레스, 경력개발, 리더십, 양성평등, 대인관계갈등, 의사소통 등
- 심리/정서** 강박, 우울, 불안, 분노, 대인관계, 자살충동 등
- 가정** 부부관계,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 가족 내 의사소통 등



집단/힐링체험 프로그램

웰니스캠프

- 자연에서 찾는 나를 위한 웰니스 캠프(1박 2일/당일형 중선택)
- 연중 4회 실시

힐링배달 프로그램

-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단체 힐링 프로그램
- 소이캔들 만들기, 커피테라피, 바디 체크업 등 실습 위주의 체험형 프로그램
- 참여대상 : 20~30명 단위 신청 가능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신청, 운영일정, 장소, 홈페이지 상시 안내

※ 상기일정은 변동가능하며 공식일정은 The-K마음심 홈페이지 (<http://ktcu-hue.com>)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기저축급여로 시작하는 설레는 출발, 든든한 미래 설계 교직원이라면, 최고의 재테크 "다 계획이 있구나"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처음부터 현명한 재테크 습관을 들여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이라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를 눈여겨 보자.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높은 급여율(이자율)에 연복리, 이자저율과세(0~3%대), 높은 안정성 등 뛰어난 조건에, 대여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생애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슬기로운 금융 생활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

새내기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받은 첫 월급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는 소비 성향이 강한 연령층으로 자동차 구입이나 여행, 취미생활 등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씀씀이가 험프기 십상이다. 따라서 소중한 월급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터, 고정 수입이 생긴 만큼 고정 저축 계획을 세워 확실히 돈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저금리·저성장 기초의 금융 환경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 복리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 즉,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두고, 월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두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사회 초년생일수록 탄탄한 생애 재무 설계에 든든한 도움이 될 장기 적금 상품에 미리 가입해 일찍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함을 잊지 말자.

든든한 노후 안전장치, 장기저축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는 지난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월 적립식 저축제도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됐다. 가입 시 교직원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대여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시중 금융상품과 달리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이자에 대한 저율과세(0~3%대)'와 '높은 안정성'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에게 사랑받아왔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모든 상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최고 수준의 원리금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시중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체의 보수, 수수료, 사업비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장기저축급여는 연복리(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하면서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퇴직할 때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오래 납입할수록 연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장기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언제든지 편리하게 증·감좌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TIP

장기저축급여 가입구좌(저축한도)와 이율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1,500구좌(900,000원)
-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1구좌 = 600원)
- 이율: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9.1. 기준)



장기저축급여 장점



장기저축급여 가입방법

- 내방** 시·도지부 및 본부 방문 후 서류작성
- 우편**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증·감좌)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발송
※무기계약직 및 사람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2주일 이내 발급분)
- 홈페이지** 본인 명의의 은행 및 보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

중간에 탈퇴할 경우

가입 후 20년 미만에 퇴직 이외의 사유로 급여금(원리금)을 청구할 경우, 원금은 100% 지급되지만 부가금(이자)은 다음과 같이 가입기간(납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탈퇴 시 원리금 지급률

가입기간	탈퇴급여금
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공제회 회원이라면 누릴 수 있는 풍부한 혜택

대여제도 일반대여, The-K복지누리대여(미소누리 최초대여/행복누리 결혼대여/든든누리 주택대여/희망누리 출산대여), 무이자 대여, 분할급여 대여 등	복지부조 신규회원가입/재가입/특별회원가입축하기념품, 결혼기념품, 출산 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상병/유족급여 등	문화행사 유명 뮤지컬/클래식/오페라/콘서트 등 고품격 문화행사 및 교육기관/연수원 대상 찾아가는 공연, 무료 영화예매권/도서 증정 등
보험제도 종합보험, 암보험, 자녀보험(어린이/청소년), 재해보험, 시니어보험, 간편심사보험, 특화보험, 치매보험 등	제휴 복지시설 직영호텔 및 전용콘도, 제휴리조트/호텔, 제휴카드, 의료기관, 법률/세무상담, 레저/스포츠/교통/문화, 음식점, 장례식장 등	문의 1577-3400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셜미디어 톺아보기

SNS로 만나는 내 손안의 공제회, 소통 채널 ‘바로 가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오프라인 매거진뿐 아니라 웹진, 앱을 넘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콘텐츠의 양과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블로그부터 포스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뉴스레터까지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채널 속 공제회 이야기, 지금 ‘바로 가기’ 해보자.

공제회원은 SNS로 통한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일상의 연결고리

풍성한 공제회 소식과 공감 가는 콘텐츠로 매일 회원들과 폭넓고, 더 깊게 소통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여러 SNS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회원 간 일상의 연결고리를 더 견고하게 잇고 있다. 혹시나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회원들을 위해 유익한 공제회 소통 채널을 한곳에 모아 보았다. 회원이라면 SNS 채널을 통해 더 깊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존하는 긍정 에너지를 가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 - 공제회의 모든 소식을 한눈에!

‘교육가족의 다락방’은 공제회 대표 SNS 채널인 블로그다. 블로그에는 공제회 뉴스와 교육, 재테크, 트렌드, 기사단들의 체험 콘텐츠 등 풍부한 읽을거리가 가득하다. 블로그 이웃추가를 신청하면 더욱 발빠르게 공제회 소식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이미 이웃이라면, 다양한 블로그 이벤트를 홍보하며 공감과 댓글로 블로그를 짹짹 채우고, 아직 이웃이 아니라면, 당장 이웃추가부터 신청해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포스트 -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유익한 콘텐츠 다시 보기!

공제회 블로그 메인 페이지 하단에는 녹색 글씨로 된 ‘포스트’ 배너가 마련돼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포스트는 한 주간 페이스북 등에서 발행되었던 콘텐츠 중 회원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선정하여 주 1회 금요일마다 다시 소개하고 있다. 인기 포스트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포스트 팔로우를 하면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포스트



페이스북 - 블로그 이야기가 카드 뉴스에 쏙!

한국교직원공제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면 공제회 SNS에서 핫한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를 카드 뉴스로 담아 교육가족에게 유익한 일상 이야기부터 교육 및 공제회 정보, 알짜배기 금융 이야기,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공제회 소식을 보기 쉽게 소개한다. 또한 '먼저 보기' 설정을 하면 페이스북 내에서 다른 콘텐츠보다 더 빨리 공제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더케이? '덕혜'로 통하는 공제회 이야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덕혜'를 알 것이다. '덕혜'는 'The-K(더케이)'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붙여진 인스타그램 캐릭터의 이름이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귀여운 덕혜쌤의 교직 이야기와 함께 공제회의 행사 소식, 서비스 안내 등을 만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팔로우를 꼭 눌러보자. 덕혜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스타그램



유튜브 - 영상으로 더 즐겁게, 이벤트까지 신나게!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 한국교직원공제회도 2012년부터 유튜브를 운영 중이다.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핵심만 콕콕 짚어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언박싱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에 한번씩 다양한 퀴즈 이벤트로 회원들을 반긴다. 또한 브랜드 영상과 캠페인 영상도 시리즈별로 올라와 있고, 회원으로 구성된 The-K 크리에이터의 솔직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제회 서비스 체험후기 영상 콘텐츠도 게재될 예정이다. 매월 「The-K 매거진」에 소개된 기사도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 회원이라면 공제회 유튜브 채널 '구독' 꼭! '좋아요' 꼭! 잊지 말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뉴스레터 - 핫한 SNS 콘텐츠 모두 모여라!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이메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에서는 가장 핫한 공제회 소식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SNS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공제회 이야기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뉴스레터





Rigoletto

겨울밤을 수놓은 음악의 향연 오페라 「리골레토」

지난 1월 30일,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다. 아직은 얼얼한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공연장은 수많은 회원의 설렘과 기대 때문인지 열기가 뜨거웠다. ‘여자의 마음’, ‘그리운 이름’ 등 익숙한 아리아가 곱게 울려 퍼진 현장을 「The-K 매거진」이 함께했다.

글. 김유리 사진. 김도형

기분 좋은 새해 시작, 오페라와 함께

해가 진 저녁,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기분 좋은 시작이란 이런 걸까? 새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한 회원들은 쌀쌀한 날씨가 무색하게 다들 봄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공연장에 입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문화복지팀장은 올해 첫 행복서비스 초청행사 개최에 대해 기쁜 마음을 전했다.

“문화복지팀에 있다 보니 회원님들께 좋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늘 고민합니다. 지역 선정 또한 전국의 회원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해 첫 공연은 대구로 정했어요. 이곳은 문화 전반에 조예가 깊은 회원님들이 많아 행사를 할 때마다 기대가 되거든요. 호응도 좋고, 참여도가 높다 보니 보람을 많이 느껴요. 다른 지역에서도 기다리고 계신 회원분들이 많은데 더 좋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오페라는 베르디 중기 3대 오페라 걸작으로 불리는 「리골레토」다. 「일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와 더불어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 「그리운 이름」 등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연출



가 엄숙정, 미네소타 오페라극장 소속 지휘자이며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브란다니가 이끌었다. 주인공 '리골레토' 역은 도밍고 오페라리아 콩쿠르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리톤 마르코 카리아가, 그의 딸 '질다' 역은 주세페 디 스테파노 콩쿠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마혜선이,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귀족 '만토바 공작' 역은 테너 권재희가 맡았다. 살인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 역의 베이스 이진수, 그의 여동생 '막달레나' 역의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마를로' 역에 바리톤 권성준 등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했다. 또한 오페라 전문 연주단체 디오오케스트라와 대구오페라콰이어가 참여해 리골레토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관객이 만나다

빅토르 위고의 희곡 '환락의 왕'을 원작으로 한 비극 작품 오페라 '리골레토'는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과 그의 만행을 부추기며 귀족들을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궁정 광대 리골레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분노한 귀족들에 의해 사랑하는 딸 질다를 공작에게 빼앗긴 리골레토,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청부업자에게 공작을 죽여 달라 의뢰하지만 결국 딸을 죽음으로 모는 결과를 맞이한다. 다소 무거운 비극임에도 오페라 '리골레토'가 오랜 시간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베르디의 극적인 선율과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리아가 가득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극 중간중간 출연자의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 공제회 회원들의 폭풍 같은 박수가 이어졌다. 특히 질다 역의 소프라노 마혜선의 아리아 '그리운 그 이름'과 만토바 공작 역의 권재희가 부른 '여자의 마음'이 나올 때는 브라보가 끊이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열연과 더불어 이날 공연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고전적인 의상과 액자 형태로 제작된 독특한 무대였다. 또한 무용수와 연기자들의 화려한 안무까지 더해져 16세기와 현대가 공존하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리골레토와 질다가 함께 부른 '아버지,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가 끝나자 관객들은 열정적인 박수를 보냈다. 두 시간 반의 짧지 않은 공연시간임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밀도 높고 완성도 높은 공연이었다.

감동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로 나온 출연진들이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포토존에 선 것. 무대 위의 존재로만 생각되던 배우들을 눈앞에서 마주한 공제회 회원들의 기쁜 표정에서 오늘 공연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배우와 함께한다는 것이 매우 친근하게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준비한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관객들의 찬사와 '브라보~'로 마무리한 오페라 '리골레토', 시작이 좋은 만큼 The-K 행복서비스 회원초청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오페라 데이트”

오아영(대전태평초등학교 교사)/장우진

그간 'The-K 매거진'을 보기만 했지 응모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처음 응모한 공연에서 덜컥 당첨되어 남자와 함께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오페라는 다른 공연에 비해 자주 접하지 못해서인지 기대 반 설렘 반이네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문화행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퇴직 선물을 한아름 받은 기분”

노해득(광주과학기술원 전 행정처장)
/방숙희



광주에서 오늘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구에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 공연이 대구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대구 맛집도 찾아가고, 오페라 공연도 보고, 아내와 데이트를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든 하루였네요.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The-K 행복서비스 ‘북&JOY’

매월 새로운 베스트셀러를 만나볼 시간, ‘책과 함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큰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독서. 나를 위한 책으로 떠나는 여행, 그 행복으로 가는 즐거운 여정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마련한 The-K 행복서비스 ‘북&JOY’가 있다. 글. 편집실



책과 함께 어제와 다른, 더 나은 일상을 꿈꾸다

비행기 티켓이 없어도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올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재테크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도 훌륭한 역사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책이 있기에 가능하다.

어제와 다른 삶, 좀 더 나은 날을 꿈꾼다면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들의 즐겁고 유익한 일상을 위해 The-K 행복서비스의 일환으로 ‘북&JOY’ 도서 증정 행사를 해마다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회원 선호도를 반영한 도서를 증정함으로써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전국의 회원들에게 두루 제공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한층 더 풍성해진 2020년 ‘북&JOY’

지난해 총 4회의 행사로 회원들에게 도서 증정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행사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월 1회 정기 행사로 매월 당첨회원 1400명에게 1인 1권을 증정하여 연간 총 1만 5000여 명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를 증정할 계획이다.

증정되는 도서도 지난해 회당 2~3권에 한정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내 대표 종합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 셀러 20종을 선정하여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인문·소설·자기계발 등 다양한 장르에서 회원이 희망 도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크게 넓혀서 더 많은 회원들이 일상에서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배려했다.

‘북&JOY’와 함께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에만 찍어두었던 책을 펼쳐보는 시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 책과 함께 서로 교감하며 좀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회원들의 2020년을 한껏 기대해본다. ㉠



3 월 의 북 & J O Y 증 정 도 서

• 행사기간 : 2020. 3. 2(월) ~ 3. 22(일)

• 증정인원 : 1400명

• 당첨일 : 2020. 3. 25(수)

• 도서발송 : 4월 중 당첨자에 한해 순차배송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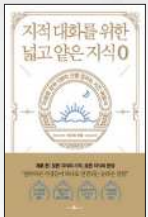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지음 | 데이비드 S. 키더
출판 | 위즈덤하우스
출간 | 2019. 10. 30.

하루 1분이면 교양 시민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이 뽑은 교양 필독서
1일 1페이지씩 365일 동안 세계의 지성을 마스터한다!

지성을 자극하여 배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총망라한 책이다.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에 이르는 일곱 분야의 지식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1년 365일 동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인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제로 편

지음 | 채사장
출판 | 웨일북(whalebooks)
출간 | 2019. 12. 24.



에이트(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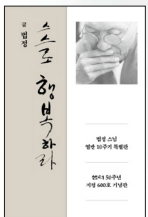
지음 | 이지성
출판 | 차이정원
출간 | 2019. 10. 21.



팩트폴니스(FACTFULNESS)

지음 | 한스 로슬링
출판 | 김영사
출간 | 2019. 03. 10.

시/에세이



스스로 행복하라

지음 | 범정
출판 | 샘터(샘터사)
출간 | 2020. 01. 06.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지음 | 글배우
출판 | 강한별
출간 | 2019. 09. 04.



지금 이대로 좋다

지음 | 범륜
출판 | 정토출판
출간 | 2019. 10. 30.

경제/경영



트렌드 코리아 2020

지음 | 김난도
출판 | 미래의창
출간 | 2019. 10. 24.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지음 | 이윤규
출판 | 비즈니스북스
출간 | 2019. 12. 16.



부의 인문학

지음 | 브라운스톤
출판 | 오픈마인드
출간 | 2019. 10. 04.

*위의 도서는 본회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증정 도서 20권 중 1위부터 10위까지의 도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보증대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보증대여 신청 … 온라인 채널 확대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에게 필요자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PC, 모바일)에서 장기저축급여 저축금액 내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단독대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장기저축급여 저축금액에 보증보험 이용한금액을 더한 금액 내에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보증대여’도 홈페이지(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상세 신청 조건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증대여
신청·접수
절차 안내

- ① 보증보험가입 등록 및 동의 : SGI서울보증
- ② 홈페이지 대여 신청(스크래핑 포함) : 한국교직원공제회
- ③ 심사 : SGI서울보증
- ④ 보증보험가입 전자서명 : SGI서울보증
- ⑤ 대여금 지급 : 한국교직원공제회

※ 단독대여는 PC 및 모바일에서, 보증대여는 PC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스크래핑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이용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 오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 우편 또는 내방 신청 시에는 본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목돈·퇴직생활급여 급여율(이율) 조정

3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목돈급여’와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의 급여율을 연 2.70%에서 2.55%로 조정한다. 퇴직생활급여 중에서는 ‘부가금형’ 및 ‘적립형’만 급여율이 조정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는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이자율)로 운영하여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목돈급여는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목돈 납입 후 가입기간 동안 이자를 분할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청구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예탁형’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적립형’으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퇴직 회원을 위한 제도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외에도 퇴직 회원의 노후 자금을 높은 이율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생활급여가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자금 활용목적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 납입 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적립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 시 원금을 돌려받는 ‘부가금형’ ▲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받는 ‘확정연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목돈급여	연 2.70%	연 2.55%
퇴직생활급여 중 부가금형·적립형	연 2.70%	연 2.55%

☎ 문의 1577-3400



마케팅 동의 변경 회원 대상 이벤트

3월 31일까지 1000명 추첨 …

4월 중 무료 영화예매권 증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9년 11월 말 기준 마케팅 미동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개최한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마케팅 정보를 동의로 변경한 공제회 회원 중 추첨을 통해 4월 중 1000명에게 무료 영화예매권을 증정한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 콜센터, 서류접수 등으로 마케팅 동의 전환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마케팅 동의 회원을 대상으로 출자회사 포함하여 각종 제도·사업·문화행사 등 회원들에게 유익한 공제회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열정과 아이디어로

회원들이 ‘직접’ 말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크리에이터 1기 출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월부터 일반·특별(퇴직)회원으로 구성된 ‘The-K 크리에이터(▲기사작성 분야 ▲영상제작 분야)’를 통해 공제회의 다양한 소식과 각종 서비스를 회원에게 알린다. 특히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하여 2012년부터 8년간 운영해온 ‘The-K SNS 기지단’을 개편하고, 영상제작 분야를 신설하여 선발했다.

The-K 크리에이터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각종 미디어 채널에 게시될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각종 소식 안내, 교육 및 업무 관련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바이럴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각종 소식 안내 및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 ‘교육가족의 다락방’을 비롯해 페이스북 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The-K손해보험 매각계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하나금융지주는 2월 14일, The-K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The-K손해보험 지분의 70%를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금융당국의 승인이 마무리 되는대로 매매대금이 납입되고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The-K손해보험은 지난 2003년 12월 교직원 대상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로 출범해 2014년 종합 손해보험사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손해보험 고객 중 49%가 공제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하나금융지주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경영 참여로 회원들에게 보다 폭넓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The-K호텔서울, 봄맞이 스프링 패키지



The-K호텔서울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까지 ‘스프링 패키지(Spring Package)’를 진행한다. ‘스프링 로맨스 패키지’는 ▶객실(일반실) 1박과 수제초콜릿 9구가 제공되며, 11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스프링 패키지B’는 ▶객실(일반실) 1박과 저녁 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며, 18만원 특가로 이용할 수 있다. 스프링 패키지 이용 회원에게는 ▶사우나 및 헬스장 시설 이용 시 50% 할인, The-K호텔서울 레스토랑 우첼로·더파크·베이커리 카페 델리 이용 시 식·음료 15%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또한 레스토랑 우첼로·더파크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 및 입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졸업생 및 입학생을 동반한 회원 이용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반 인원이 4인 이상일 경우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본 프로모션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이용 시 졸업·입학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The-K호텔서울은 신종 코로나19 예방과 회원의 안전을 위해 호텔 내에서 열감지 카메라 설치 및 주기 소독을 진행하여 감염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해두어 방문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02-571-8100

The-K호텔경주, 특별 우대·시네마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신학기과 봄을 맞이하여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 패키지’, ‘시네마 패키지’를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특별우대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2인 구성으로, 일~목요일 11만7000원, 금요일 13만2000원, 토요일 14만2000원이다. ‘시네마 패키지’도 지난달에 이어 3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시네큐 영화관람권 2매 구성으로, 일~목요일 12만1000원, 금요일 13만2000원, 토요일 14만2000원이다. 또한 생딸기 주스·생딸기 요거트쉐이크·딸기케이크 등 The-K호텔경주 내 커피숍 딸기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 판매하여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제철 딸기를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봄맞이 이벤트·패키지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봄을 맞이하여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시행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좋아요’를 누른 후 입실 시 프런트에 제시하면 ‘봄이라~뽀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일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3월 21일, 28일에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벤트 상품은 미당첨의 경우를 포함하여 ▶조식 2인, 사우나 2인, 커피숍 2인, 산수유 세트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랜덤으로 제공된다. ‘팔로우’ 1건당 1회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3월 동안 숙박하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고로쇠 패키지도 판매한다. 객실 1박과 고로쇠 수액 2병(1.5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평형 기준 6만원, ▶20평형 기준 7~8만원 ▶23평형 기준 9만원이다. 단, 주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3월 지리산 근처에서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 하동화개장터벚꽃축제 등 다양한 봄 축제와 함께 봄 여행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 061-783-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사우나 패키지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여유롭고 편안한 동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된 요금으로 객실과 사우나 이용 가능한 특별 패키지를 판매한다. ‘사우나 패키지A’는 객실 1박과 사우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며, ▶20평형(전면) 기준 주중 3만9000원이다. ‘사우나 패키지B’는 객실 1박과 사우나 2인 이용권에 아메리카노 커피 2잔이 제공되며, ▶20평형(전면) 기준 주중 4만1000원 특가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우나 이용권 인원 추가 시 1인당 30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성수기·극성수기 기간 및 20평형(후면)·29평형·47평형 이용 시에는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

☎ 033-639-8100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대여’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1971년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전국 18개 시도지부와 8개 출자회사(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손해보험, The-K저축은행, The-K소피아그린CC, The-K서드에이지, The-K에다함상조, The-K교직원나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혜택받는 안정적인 ‘대여’를 통해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2017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탈퇴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거치 기간 2년 포함 상환 기간 최장 10년 가능
- 일시상환, 부분상환 언제든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3.74%(변동금리, 2019. 09. 01. 기준)

무이자대여



◎보건의료자금대여

폐결핵 또는 질병, 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이 보건의료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5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1년/2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재해복구자금대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상환기간 1년/2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회원이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분할급여대여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과정에서 기존 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무이자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300만원 ~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70% 이내인 회원
 - 퇴직예정회원으로 1회만 이용 가능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03. 01. 기준)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400

※'대여'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세부 신청조건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회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미소누리 최초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이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본회 대여제도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무이자대여 제외)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행복누리 결혼대여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희망누리 출산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에 따른 보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5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휴직기간 중 보증보험 이용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 (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든든누리 주택대여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구입·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

-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상환 기간 최장 10년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 제도시행일(2018. 09. 0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 가능
- 휴직기간 중 보증보험 이용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 이율 : 연 2.99%(변동금리, 2018. 10. 01. 기준)



소통하고, 함께하다 ‘독자에게 듣는 The-K 매거진’

지난 2019년 9월, The-K 매거진 개편 이후 많은 독자들이 매월 이메일과 웹진, 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어린 의견 한 줄 한 줄이 The-K 매거진을 더욱 성장하게 합니다. The-K 매거진은 독자와 함께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그간 보내주신 의견 중 지난 1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의견들 중에 더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의미 있는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더 많은 독자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The-K 매거진을 꿈꾸며 힘껏 정진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 소개된 10분의 회원님을 포함하여 선정되신 30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박보영 회원 주례중학교

신병주 교수님의 ‘법고창신’ 정신을 되새길 필요성에 완전 공감했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사 전문성을 위한 실천적 논의에서 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줄 교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감했습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는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너무 많고, 머리는 있는데 가슴은 없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을 보듬는 역할은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사가 전문가가 되는 데 외부 요인, 즉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사가 명퇴하는 선배교사들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아람 회원 염경중학교

독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개선해나가는 것 같아 좋네요. 꼼꼼히 읽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관심 있게 볼만한 내용이 많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구독하겠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역사 이야기입니다. 술술 읽히는 내용이라 쉽게 역사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썸 캠프도 궁금했는데 덕분에 간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참가해볼 만한 듯해요. 좋은 글 좋은 기사들 감사합니다.



신경수 회원 좋은유치원

「오늘 생각하기, 나다움을 결정하는 6가지 핵심요소」 글을 읽으며 ‘진짜 좋은 글이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쯤 아래로 내려다보니 SNS share 기능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글들은 저작권이나 불평을 못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고 편한단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URL도 복사가 되고 프린트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글들 주변에 많이 소개해주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지면 좋을 텐데 그건 좀 욕심이었죠??^^



이현숙 회원 서울사근초등학교

The-K 매거진의 ‘어제 - 오늘 - 지금 - 내일’로 섹션을 나누어 기사를 읽는 부분이 좋습니다. 현직 교사로서 항상 오늘 현재의 기사를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 지도 및 교사 역할에 대한 기사가 훌륭합니다. 참고하려고 매번 스크랩을 하여 보고 있으며, 새로운 학교의 다양한 공간 등에서 운영되는 교육 활동에 대한 소개도 무척 인상적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교사들을 위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이나래 회원 강경상업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특수교사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항상 고민을 합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장애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말이죠. 1월호에서 '공간의 재구성' 세종 새롭고등학교 편을 보면서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공간 구성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외형도 중요하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몸은 괜찮더라도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학교차원에서, 교사로서 어떠한 의견을 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공간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잠재적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고민하는 선생님, 특히 학교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분야의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특수 선생님, 보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더욱 보고 싶습니다.



장지은 회원 은아유치원

매번 「그 썸의 이중생활」의 다양한 선생님들 소개가 흥미롭습니다. 특히 1월호에 소개된 박종훈 선생님이 변호사로 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라는 내용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현시점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선생님들 소개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숨겨진 더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잘 발굴하는 The-K 매거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임근수 회원 단양중학교

1월호 내용 중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HERE I AM 사진전'을 가장 뜻 깊게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보다 폭 넓은 관심과 이해,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호에서 다루어진 장애 관련 사진전의 내용이 뜻 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에 기반한 여러 기사를 게재해 주셔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명환 회원 솔빛유치원

제가 매거진을 알게 된 후 아내에게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거진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았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알려주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The-K 매거진 덕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로 인해 서로의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희 세 아이에게 행복한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욱 2020년에는 The-K에 다가가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남보라 회원 서울정릉초등학교

1월호 내용 중 「지상 강의」에서 소개된 '물입(러너스 하이)' 편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늘 계획대로, 목표 성취를 향해 하루를 보내는 제게 '그래도 괜찮아. 넌 틀리지 않았어' 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벤트나 교직원공제회 관련 홍보도 좋지만 이러한 주제에 대해 깊이 접근하고 다루는 칼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황서영 회원 오마초등학교

「오늘 생각하기, +55 인생 2모작」 시니어 모델 김선 선생님의 기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교사들은 뭔가 정형화되고 조금 촌스러운 듯한 패션에 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졌는데요. 자신의 장점과 소질을 잘 살려 용기 있게 인생의 2부를 멋지게 장식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오프 세대에 접어드는데 건강과 마음 관리 잘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행복한 일터를 가꾸는 일터학습자의 역량

우리가 학교 교육을 16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은 그 배가 된다. 평균적으로 이 기간 동안 최대 15개의 일터와 직무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렇다면 일터 내 학습의 상황을 인지하고, 일터학습이 일어나도록 본인과 동료들 격려할 수 있도록 일터학습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글. 이민영(현대경제연구원 전문교수)



일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들다

자신에게 있어 일이란 어떤 의미인가?

“일이 나를 지탱할 것이다.” 『실락원』의 저자인 영국의 소설가 존 밀턴의 말이다. 우리는 일이 있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출근한다. 우리는 다음 날 일이 있기에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일이 있기에 단정한 말을 사용하고 하루하루 성숙된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생각은 어떤가?

“아, 왜 평생 일을 해야 할까?”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한 말이다. 일에 대한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 만약 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40년 가까이 일을 하게 되는 동력을 어디서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바로 나의 일이 갖는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내 일에 대한 가치는 내가 정한다

우측 그림은 글로벌 기업 애플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받게 되는 편지라고 한다. “여기에 끝장을 보기 위해 온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가 느껴진다.

나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 내가 하는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을 때,

일의 성과도 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라이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일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나오게 되어 있다. 스스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고 성장했다고 느낄 때, 내가 하는 일이 가치롭게 여겨진다. ‘끝장’을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매 순간을 학습이라 인지하는 ‘일터학습자의 역량’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싶다.

세상에는 그냥 하는 일과, 일생을 걸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주말이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애플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그저 무난하게 근무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에 끝장을 보기 위해 옵니다.

그들의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길 원하니까요.

어떤 거대한, 애플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애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월호



독자퀴즈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thekmagazine@ktcu.or.kr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Quiz 1.

이미지로 생각하는 시각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배곧초등학교 김차명 교사가 그림이나 이미지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올리는 수업 방식은?

○○○○ ○○ (32~35p 참고)

Quiz 2.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자기계발형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건강, 여가, 능력에 자기계발 포인트를 두고 전방위적 성장을 꿈꾸는 이들을 뜻하는 신조어는?

○○○○○ (36~37p 참고)

Quiz 3.

지난 1971년 도입된 국내 최장기 월 적립식 저축제도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을 적용해 설계되어 오랫동안 회원들에게 사랑받아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적금 상품은?

○○○○○○○ (64~65p 참고)



※ 1월호 독자퀴즈 및 독자의견 선정자는 웹진(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3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월호 선정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끈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총 151명의 독자님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취미 회원님들의 신년 각오와 신병주 교수님이 소개한 조선 왕들의 리더십, 놀이 수업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인희 선생님의 인터뷰가 감동적이었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사제 간의 정을 다룬 기사나 공제회의 다양한 상품 소개와 이벤트 확대에 대한 요청 및 새로운 칼럼에 대한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즉석당첨 이벤트의 경우, 다양한 경품을 원하시는 독자 의견을 반영해서 경품 종류를 다양화했고, 이벤트 당첨자 수도 늘렸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의견들을 즉각적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추후 기획·편집 시 참고하여 최대한 독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좋았던 코너나 내용, 새로운 의견(The-K 매거진에 바라는 점) 등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독자 의견



이벤트 기간 : 3월 1일 ~ 15일

The-K 매거진 모바일 앱 지금 다운받고 선물 받자!



모바일 SK주유권
10,000원권(300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쉽게 만나는 The-K 매거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벤트'

이벤트 응모 방법



- ①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혹은 '더케이 매거진'을 검색하세요.
- ② 앱을 먼저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 ③ 앱에 접속하여 '앱 다운로드 이벤트' 광고를 클릭하세요.
- ④ 양식에 맞게 ②번에서 캡처한 사진 이미지 첨부와 응모자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왼쪽 QR코드를 통해서도 응모 가능합니다).

이벤트 기간

3월 1일 ~ 15일

당첨자 발표

4월 1일 (웹진 게시 및 개별 선물 문자 발송)

이벤트 상품

모바일 SK주유권 300개



집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The-K 매거진! '정기구독 신청하기'

2020년 4월호부터 12월호까지만 발송됩니다!

정기 구독 신청기간

3월 1일 ~ 20일 **선착순 800명**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The-K 매거진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정기구독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성함 / 주소 / 소속기관 / 연락처를 기입해주시면 The-K 매거진을 매월 회원님 가정에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
⇒





교직원이라면 종합보험 대신
종합공제 (2002)
드르게 인지상정!

교직원 맞춤형 특약에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쫓~ 누리다가 만기 생존 시
환급까지 받는 보험

종합공제

(2002)



※ 환급형 선택시

The-K 매거진
3월 즉석당첨
이벤트

파릇파릇 봄이 왔나봄

The-K와 함께 여는 두근두근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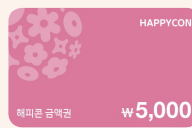
빵빵한 선물들과 신나게 출발해볼까요?

(다양한 경품을 원하시는 독자 의견을 반영해서 매월 경품 종류를 다르게 하고,
경품 금액을 조정하여 당첨자 수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 이벤트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아리따움 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해피콘(SPC)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300개)



CU편의점 모바일상품권
3,000원권(6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3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기프티콘은 4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